

일반공동연구유형

연구 계획서

사 업 명(유형)			2022년도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일반공동연구)				
연구과제명	국 문		문명의 시원, 그 연구의 여정과 실제				
	영 문		Origins of Civilization: A Review of Scholarship and Reconstructions				
연구규모 및 참여연구원	연구기간		2년		참여인원 (학생 연구자 제외)	연구책임자	1명
	신청 연구 비	1차년도	75,000	천원		일반공동연구원	6명
		2차년도	100,000	천원		박사급연구원	1명
		3차년도	25,000	천원		합계	8명
		4차년도		천원			
		합계	200,000	천원			

<목차>

I. 연구요약	1
II. 연구내용	4
1. 연구의 목적	4
2. 연구방법 및 내용	7
3. 연구진 구성 및 역량	16
4. 결과 활용방안	20
5. 기타사항	21
6. 추진일정	22
7. 참고문헌	24

I. 연구요약

<p>연구목표 (한글 2000자 이내)</p>	<p>이 연구는 세계 주요 고대문명 연구의 기반구축을 위한 다지역 학제간 프로젝트이다. 인류 문명의 주요 발상지인 고대 근동과 인도, 중국의 세 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p> <p>인류의 다양한 문명이 형성되는 과정은 19세기 이래 세계 학술허의 핵심 연구과제이다. 전 세계 유수의 대학들에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로 인해 국내의 학술적 관심은 아직 거기까지 제대로 미치지 못했다. 이제 우리의 그 시야를 세계 학술허의 보편적 관심사로 넓혀갈 때가 되었다고 본다. 그러한 여건 역시 조성되고 있다.</p> <p>지원자들은 2020년 8월 고대문명연구소(https://irec.study/)를 발족하고, 연구의 동력을 모아왔다. 2022년 1월까지 다양한 지역과 주제로 국내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17차에 걸쳐 정기포럼을 가지면서, 국내에 고대문명 연구의 시야를 확대해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련 연구자들을 최대한 모아 구성한 이 프로젝트가 국내 고대문명 연구의 토대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자 향후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되리라 확신한다.</p> <p>2년 동안 진행될 본 연구는 1년 차 총론에서 우선 각 지역 문명별 “연구사”를 정리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 연구의 연륜이 짧은 새로운 분야를 결집하면서 그 기본이 되는 연구사 이해가 필수 선결 과제라고 보았다. 둘째, 국내 학술허에서 소외학문으로서의 현실도 고려하여, 연구와 교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충실한 연구사 정리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셋째, 본 연구에서 다룰 각 고대문명은 모두 오랜 연구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고대문명의 특정 연구주제를 다루는 것 이상으로, 연구사 자체에만도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 있다는 애기다. 넷째, 방대한 내용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저자의 관점으로 다루어야 하는 각 지역 고대문명 연구사 정리는 지원자들에게도 자신의 연구역량을 전적으로 발휘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작업이다. 어려운 만큼 의미 있는 작업을 통해서 본 연구팀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인 문명 간 비교적 시각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p> <p>2년 차 각론의 제목인 “문명 전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전략적이다. 첫째, 각각의 고대문명이 일정 단계로 성장해가는 궤적은 보편적이지만 균일하지는 않다. 각 지역의 특성에 따른 연구의 자료와 소재 역시 다양함을 고려할 때, 연구의 폭을 굳이 특정 주제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각 지역이 문명 혹은 국가 단계로 진입하는 보편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문화 양상들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총론에서 근동과 인도, 중국의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종합적 비교 평가를 시도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고대문명의 형성 과정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추후 본격적인 고대문명 연구를 위한 서막이다. 1년 차의 “연구사” 정리와 함께 2년 차의 “문명 전야”라는 주제까지 다루면서 자연스럽게 더욱 심도 있는 다양한 연구주제와 기획을 추구할 기반을 닦아갈 수 있을 것이다.</p>
<p>기대효과 (한글 2000자 이내)</p>	<p>1) 학문의 균형 발전</p> <p>유럽이나 중국에서 오랜 역사를 지닌 그리스/로마나 고대중국에 대한 연구를 제외하면, 고대문명 연구는 19세기부터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를 중심으로 본격화되었다.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이 이를 선도했고, 연구의 범위 역시 시리아/팔레스타인이나 인도, 중국까지 확대되었다. 20세기 들어 미국이나 일본 등도 연구에 동참하며 뛰어난 성과를 축적해오고 있다.</p> <p>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고대문명에 대한 수준 있는 연구를 산출해온 주체가 대체로 그 문명의 발상지와는 무관한 선진국들이라는 점이다. 고대문명에 대한 탐구가 제국주의라는 정치적 목적과 연관된 측면도 없지 않지만, 연구 자체는 인류의 초기 발전에 대한 순수학문적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고대문명 연구가 선진국형 순수학문이라는 점에 국내의 열악한 현실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p>

	<p>그러나 현재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이미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 이제 한국 역시 전 세계적 보편성을 지니는 고대문명 분야 같은 인문학 연구에 당당히 동참할 만한 때가 되었다. 본 연구가 국내 학문의 균형 발전을 한층 앞당길 수 있으리라 믿는다.</p> <p>2) 진정한 세계화 본 연구팀의 구성원들은 종사하는 학문의 속성상 누구 못지않게 국제화의 최전선에 자리하고 있다. 세계 학계와의 소통 없이는 불가능한 본 연구의 과정에서 바람직한 세계화의 일단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타자에 대한 이해가 자신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촉진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 연구를 통해 그동안 그 큰 무게에도 불구하고 경시될 수밖에 없었던 세계 고대문명이라는 타자에 더욱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진정한 세계화에 일조하길 기대한다.</p> <p>3) 상상력 고양 고고학과 고대사는 4차 혁명 시대에 더욱 강조되는 창의력과 상상력의 원천이다. 초기 문명이 거쳐 온 다양한 궤적과 성취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인류의 현재는 말할 것도 없고 미래까지도 구성할 근간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한국인들이 고대문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상상력은 대체로 한국이나 동아시아로 제한되어 있다. 연구를 통해 파생되는 대중을 향한 지식이 대체로 그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최초로 세계 주요 고대문명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본 연구가 훨씬 다양한 상상력의 원천이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p> <p>4) 교육적 효과 본 연구팀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국내에 기반이 약한 분야를 공부하며 학문적 충격을 경험했다. 각자 어렵게 공부한 내용을 국내의 독자들을 위해 발표하는 일은 그 자체로 의미심장한 일이다. 특히 본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인 1-2년 차의 연구성과를 단행본으로 출간한다면, 상당한 교육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지식 저변 확대로 인해, 현재 외국의 유수 대학원에서 고대문명을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들이 꽤 있는 것처럼, 앞으로 이 분야를 공부하려는 후학들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당장 국내에서 이들의 학문적 호기심을 100% 충족시키기는 어렵겠지만, 본 연구가 그 궁극적 목표를 향한 물꼬를 틀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p>
연구요약 (한글 2000자 이내)	<p>본 연구는 1년 차의 고대문명 “연구사” 정리 5편과 2년 차의 “문명 전야”에 대한 4편과 총론 1편으로 구성된다. 각 논문의 제목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p> <p>1) 1차년도 1-1) “고대근동사 200년, 세 번의 중대한 변화”: 고대 근동사 200년의 연구사를 그 연구주제와 방식의 차이를 기준으로 3 단계로 나누어서 각 단계별로 어떠한 연구주제들이 논쟁의 중심이 되었는지를 시대상과 함께 정리해 보고자 한다. 1-2) “나일 강을 따라 천 마일: 이집트학의 발전과 과제”: 근대 학문으로서의 이집트학의 발전을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를 특징짓는 방법론과 연구 주제 등을 정리할 것이다. 아울러 역사적인 핵심 저술을 소개하고 이집트학의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논할 것이다. 1-3) “시리아/팔레스타인 고고학 역사와 전망: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논쟁점들”: 시리아/팔레스타인 지역의 고고학사를 총 일곱 시기로 나누고, 고대 문명의 교량지인 이 지역의 물질문화 및 문명 연구사를 문화/문명 변화와 외부 세력이 끼친 물질문화, 문헌 자료와의 상호관련성, 최대주의자/최소주의자 논쟁의 네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것이다. 1-4) “‘인더스 문명’의 정체와 역사 전쟁”: 193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인더스 문명의 발굴 작업은 아리아인의 기원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힌두 민족주의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 연구에서는 힌두 근본주의에 입각한 이러한 민족주의적 연구에 비판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1-5) “방대한 출토 자료의 이면: 중국 고대문명 연구의 지역주의와 신고”: 120년 동안의 중국 고대문명 연구를 관통하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로 “방대한 고고학 자료”</p>

	<p>와 “지역주의”, “의고(疑古)/신고(信古) 논쟁”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p> <p>2) 2차년도</p> <p>2-1) “문명의 조건: ‘우룩 팽창’ 논쟁을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전에 나타난 주요 혁신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면서 지난 30년간 ‘우룩 팽창(Uruk expansion)’ 논쟁에서 제기된 다양한 가설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p> <p>2-2) “유일신교의 역사적 기원”: 유일신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기존의 논쟁들을 정리하고, 유일신교와 관련된 문헌 및 고고학 증거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한 후, 그것에 근거해 유일신교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독립적 제안을 할 것이다.</p> <p>2-3) “인더스 대평원 최초의 도시: 왜 그곳에서 문순아시아 최초의 도시가 성장했나?": 인더스 문명의 기원 혹은 발전 과정에 대한 그간의 고고학 연구성과와 주요 고고학 유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왜? 어떻게? 이 지역에 문순아시아 최초의 도시와 복합사회가 등장할 수 있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p> <p>2-4) “도약과 몰락의 교차로: 중국 문명 성립의 여정”: 문명 성립의 전야인 중국 신석기시대 후기 (기원전 세 번째 천년기) 흑자는 왜 몰락하고 흑자는 왜 돌연 성장하게 되었는지를 비교사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한다. 인류 사회가 어떻게 문명사회에 진입하게 되었는지를 중국에 초점을 두어 검토함으로써 전 지구적 시야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추구할 것이다.</p> <p>2-5) “총론: 고대문명 연구와 그 기원의 다양한 노정: 비교사적 시각”: 1년 차의 문명에 대한 연구사 부분과 2년 차의 “문명 기원” 문제 각각이 한 장씩 차지할 것이다. 본 프로젝트에서 진행될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서, 공통된 논쟁거리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p>
키워드(Keyword) (한글)	고대문명, 연구사, 시원, 근동(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시리아/팔레스타인), 인도, 중국
키워드(Keyword) (영어)	Ancient civilizations, a review of scholarship, origins, Near East(Mesopotamia, Egypt, Syria/Palestine), India, China

II. 연구내용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세계 주요 고대문명 연구의 기반 구축을 위한 다지역 학제간 프로젝트이다.¹⁾ 인류 문명의 주요 발상지인 고대 근동과²⁾ 인도, 중국의 세 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1) 국내 고대문명 연구 상황과 새로운 가능성

인류의 다양한 문명이 형성되는 과정은 연구 중심 대학이 처음 설립되기 시작한 19세기 이래 세계 학술계의 핵심 연구과제이다. 전 세계 유수의 대학들에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로 인해 국내의 학술적 관심은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 근대식 자생적 학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을 1950년대 이후로 본다면, 이는 충분히 이해되는 일이다. “우리 자신”에 대한 학술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했기 때문에, 다른 인문학 분야와 마찬가지로, 국내의 고대문명 연구 역시 한반도와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와 특히 북방 지역에 치중되어왔다. 최근에는 그 연구의 폭이 중앙 유라시아 지역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 뚜렷해 보인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70년간 상당한 연구성과가 축적된 상황에서, 이제 그 시야를 세계 학술계의 보편적 관심사로 넓혀갈 때가 되었다고 믿는다.

문명의 정의는 다양하여, 오랫동안 교과서를 통해 각인된 4대 문명이라는 용어도 구식이 되어가는 느낌이다. 특히 최근 말, 바퀴, 언어 같은 일부 중요한 문명 요소의 기원에 대해 아나톨리아나 유라시아 초원이 부각되고 있고, 중남미 역시 독특한 문명의 발상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렇지만, 인류 문화 역사에 본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문자와 종교, 법, 도시, 국가, 제국 등은 4대 문명을 낳은 근동과 인도, 중국의 산물임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19세기 이래 세 지역에서 출토된

1) 고대문명에 초점을 맞춘 다지역 학제간 연구과제를 신청하면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은 심사 분야를 어디로 정할지 문제이다. 16~20쪽의 “3. 연구진 구성과 역량”에서도 상세히 언급하듯, 본 연구팀 8명이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연구분야/세부전공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연구책임자(중국고대사/서주사), 공동연구원A(서양고대사/고대근동역사), 공동연구원B(한국선사고고학/구석기시대 석기), 공동연구원C(기타고고학/성서고고학), 공동연구원D(인도사/인도사), 공동연구원E(동양고고학/인도고고학, 고미술사), 공동연구원F(중국고대사/서주사, 하상주고고학), 박사급연구원(기타동양사/고대서아시아 역사, 신학). 일단 현재 한국연구재단의 학문 분류에 따라 가장 근접한 분야로 여겨지는 “동양고고학”(1순위), “중국고대사(2순위), ”서양고대사“(3순위)로 지원하지만, 가능한 한 최대한 관련 전문가의 심사를 희망한다.

2) “고대 근동(Ancient Near East)”은 단일문화를 가리키기보다 다양한 지역과 문화를 포괄하는 용어다. 북아프리카, 터키, 시리아-팔레스타인, 이라크, 이란 지역에서 발발한 고대 문명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유럽과 미국 학자를 중심으로 이 지역에 대한 연구의 역사가 150년 정도 되었지만, 이 분야에 대한 한국의 저변은 매우 열악하다. 연구자의 수가 손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적을 뿐 아니라 연구 환경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본 연구 계획에서도 고대 근동 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적 접근을 한다. 선택과 집중은 한국의 학문 저변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지만, 연구 분야의 선호나 중요도에 따른 것은 아님을 밝혀 둔다.

문자 자료를 비롯한 방대한 고고학 자료에 대한 연구는 “수월성(秀越性)” 창출이라는 학문의 최대 목표에 부응하며 여전히 고대문명이라는 학술 분야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에 연구와 교육의 기반조차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 접근을 위해 다양한 외국어 습득까지 요구되는 근동과 인도의 고대문명 연구가 부진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미흡하나마 새로운 연구의 싹이 조성되고 있다. 지원자들은 2020년 9월 온라인 기반으로 고대문명연구소(<https://irec.study/>)를 발족하고, 월례 정기포럼을 통해 연구의 동력을 모아왔다.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밝힌 아래의 설립 취지에 이 연구에 지원하는 목적이 제시되어 있다:

인류 문명의 토대를 제공한 세계 4대 문명, 가슴 뛰는 호기심의 대상이지만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한국과 가까워서 교류한 중국 고대문명만 학술적 연구의 대상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였지요. 지난 세기말부터 본격화된 한국의 경제 성장은 학술계에도 연구범위 확장이라는 과실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아직 초보적 단계를 지나고 있지만,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인도, 지중해 등 고대문명을 다룬 팬잡은 번역서들이 서점의 서가에 꽂히고 있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사실은 학문에 대한 열정 하나만으로 해외의 우수 대학에서 그 어려운 분야를 전문적으로 공부했거나 현재 공부 중인 소장 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점입니다. 이제 한국도 이런 연구자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장을 제공할 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단국대학 고대문명연구소가 한국에서의 세계 고대문명 연구를 향한 전초기지가 되길 희망합니다.

본 연구소는 2022년 1월까지 다양한 지역과 주제로 국내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17차의 정기포럼을 가졌고, 그 강연과 토론 내용을 모두 고대문명연구소의 유튜브(<https://www.youtube.com/channel/UC74QVeRITSsqvZI8gzys43A>)에 업로드했다. 이를 통해 국내에도 고대문명 연구의 시야를 확대해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련 연구자들을 최대한 모아 구성한 이 프로젝트가 국내 고대문명 연구의 토대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자 향후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되리라 확신한다.

2년 동안 진행될 본 연구는 1년 차 총론에서 각 지역 문명별 “연구사”를 정리할 것이다. 근동 지역의 핵심을 이루는 세 문명, 즉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시리아/팔레스타인, 그리고 인도와 중국까지 포함한 다섯 문명이 그 대상이다. 2년 차 각론에서는 고대 도시 문명이 기원하는 다양한 양상(“문명 전야”)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팔레스타인, 인도, 중국 문명이 탄생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단 시리아-팔레스타인 지역의 경우 도시가 아니라 ‘종교’의 기원을 탐구할 것이다. 그 지역이 인류사에 제공한 가장 큰 선물이 유일신교이기 때문이

다.³⁾ 2년 차 각론의 마지막 부분에 본 연구의 총결이라 할 수 있는 “고대문명 연구와 기원의 다양한 노정: 비교사적 시각”이 추가될 것이다.

2) 왜 “연구사”인가?

17~20쪽의 “연구진 역량”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본 프로젝트의 구성원들은 모두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나름대로 독창적 연구를 수행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 굳이 창의성을 부각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각 고대문명에 대한 “연구사” 정리를 1년 차 목표로 세운 뚜렷한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국내에 연구의 연륜이 짧은 새로운 분야를 결집하면서 그 기본이 되는 연구사 이해가 필수 선결 과제라고 보았다.

둘째, 국내 학술계에서 소외학문으로서의 현실도 고려했다. 현재 국내 대학에서 중국을 제외한 지역의 고대문명은 대체로 정규 교과과정에서 빠져 있다. 그 중요도가 낮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육을 담당할 자원이 부족했던 탓이 크다고 본다.⁴⁾ 이제 근동과 인도 지역 연구자가 어느 정도 확보된 만큼 연구와 교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충실한 연구사 정리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셋째, 본 연구에서 다룰 각 고대문명은 모두 오랜 연구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팀은 근대 이후의 연구사 정리만 해도 각 문명 당 책 몇 권의 분량을 채울 만할 정도임을 잘 알고 있다. 이는 두 가지를 함의한다. 첫째, 고대문명의 특정 연구주제를 다루는 것 이상으로, 연구사 자체에만도 그만큼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 있다는 얘기이다. 둘째, 다음 장의 “연구 방법과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듯이, 그 방대성 때문에 쟁점별로 선택과 집중이 필수적이다. 특정 주제를 몇 권의 책에 두껍게 정리할 수 있는 반면, 몇 편의 논문으로도 창의성을 발휘하여 그 주제의 핵심이나 중요한 단면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인문학의 묘미라고 믿는다.

넷째, 세 번째 이유에서도 드러나듯, 각 지역 고대문명 연구사 정리는 지원자들에게도 자신의 연구역량을 전적으로 발휘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작업이다. 어려운 만큼 의미 있는 작업을 통해서 고대문명연구소와 본 연구팀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인 문명 간 비교적 시각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3) 왜 “문명 전야”인가?

2년 차 각론의 제목인 “문명 전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전략적이다. 첫째, 각각의 고대문명이 일정 단계로 성장해가는 궤적은 보편적이지만 균일하지 않다. 각

3) 2년 차에 이집트의 도시 문명 기원에 대한 연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연구를 진행할 한국인 학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집트학으로 박사학위를 가진 한국인 연구자 중 실제 학회에서 활동하는 분은 한 분에 불과하고, 그분도 개인 사정으로 본 공동연구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집트 문명의 중요성 때문에 본 연구 사업에서는 이집트학의 연구사는 고대 근동의 유사 전공 연구자가 담당하기로 했다. 각주 2)에서 이미 말한 바처럼 한국 고대 근동학의 열악한 저변이 이런 불가피한 선택의 이유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4) 연구책임자가 재직 중인 단국대학은 올해 처음으로 교양과정에서 “고대이집트-메소포타미아의 역사와 문화”를 설강할 예정이다.

지역의 특성에 따른 연구의 자료와 소재 역시 다양함을 고려할 때, 굳이 연구의 폭을 특정 주제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2년 차 각론을 담당할 연구자들은 각각의 지역이 도시 혹은 국가 단계로 진입하는 보편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이한 양상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총론에서 근동과 인도, 중국의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비교사적 관점으로 종합적 평가를 시도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고대문명의 형성 과정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추후 본격적인 고대문명 연구를 위한 서막이다. 1년 차의 “연구사” 정리와 함께 2년 차의 “문명 전야”라는 주제까지 다루면서 자연스럽게 더욱 심도 있는 다양한 연구주제와 기획을 추구할 기반을 닦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지속될 월례 정기포럼과 본 연구의 성과를 결집할 두 차례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고대문명연구소가 명실상부한 국내 세계 고대문명 연구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아 갈 수 있길 희망한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은 특정 사안을 두고 함께 고민하며 토론해본 연구자라면 누구나 경험해보았을 것이다. 이 평범한 경구가 바로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기본 전략이다. 앞 장의 연구목적에서 서술했듯이 본 연구의 방법은 사실 단순하다. 참여 연구자 모두 각자 맡은 주제의 논문을 한 편 혹은 두 편씩 쓰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이나 주 전공도 각각 다른 참여자 모두 정해진 주제의 틀을 지켜야 해서 상당히 어려운 작업일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근동 지역에 4명, 인도와 중국에 각각 2명의 연구자를 배분했다. 각각의 연구자가 1년 차의 “연구사”와 2년 차의 “문명 전야” 혹은 “문명으로의 길”을 전담하지만, 사실상 협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지역별 공동연구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각 지역을 담당할 연구자는 상대방 연구의 보조원이자 토론자 역할까지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나아가 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전체 연구 상황을 점검하는 정기 세미나를 매달 혹은 격월 간격으로 개최할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 모두 다른 지역의 연구 양상을 공유하며 비교적 관점을 통해 자신의 연구에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각 연구의 방법과 내용은 아래에 연차별로 서술할 것이다.

1) 1차년도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시리아/팔레스타인, 인도, 중국 문명에 대한 연구사 정리로, 모두 5편의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이들 지역 고대문명에 대한 연구는 근대

이후로만 쳐도 100~2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주요 쟁점 위주의 선택과 집중이 절실한 이유이다. 각 지역의 연구 상황이 다른 만큼 통일성을 기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그 다양성을 부각할 수 있을 것이다. 최대한 이슈 중심의 비판적 시각을 견지할 것이다.

아래에 제시될 다양한 방식의 서술을 통해 세계 고대문명 연구의 역동성뿐만 아니라 주요 흐름까지 포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예상되는 다섯 지역 고대문명 연구사의 제목과 서술 방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메소포타미아

*제목: 200년 고대 근동 연구사, 세 번의 거대한 변화

18세기 후반 오토만 제국과 페르시아가 나누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고대 근동 지역에 유럽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고대 근동학 200년 역사가 시작되었다. 고대 근동학의 연구사⁵⁾는 그 연구의 주제와 방식에 따라서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단계는 유럽을 중심으로 꽃 피우기 시작했다. 유럽 학자들이 베이스 툰 비문을 기반으로 썬기문자를 해독하면서, 일반인들까지 고대 근동의 역사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주된 이유는 가장 오래된 문명이라는 점 이외에 이 문명이 가지는 성서와의 관련성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고대 근동 역사의 초기 연구는 성서와의 비교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스미스(G. Smith)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와 유사한 길가메쉬 서사시의 홍수설화의 존재를 발표했고, 성서의 이야기와 유사한 많은 고대 근동의 전통들은 독일에서 유명한 “Bible and Babel” 논쟁을 낳았다. 성서와 연관관계 속에서 발전하던 고대 근동의 연구는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유럽의 인재들이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한다. 2차 대전 이후 독일에서 미국으로 넘어가 시카고 대학에 자리를 잡은 아시리아학자 벤노 랜즈베르거(B. Landersberger)의 연설⁶⁾이 두 번째 단계 연구 경향을 함축한다. 그는 고대 근동의 역사가 자신의 용어로 즉, 오로지 썬기문자로 쓰여진 문헌 증거에 의해서만 연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서와의 비교연구에 초점을 맞추었던 이전의 연구 경향은 고대 근동 자체의 역사 연구에 길을 내주었다. 이를 위해서 아카디아어의 깊은 이해가 필수적이었고, 그 토대가 되는 사전 구축 작업(CAD)⁷⁾이 시카고 대학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또 다른 세 번째 변화의 바람이 1980년대 이후 불어오기 시작한다. 그때까지 고대 근동 연구는 문학작품이

5) 각주 2)에서 언급했듯이 고대 근동학의 지리적 범위는 방대하다. 여기서는 고대 바빌론과 아시리아가 존재했던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을 중심으로 하는 바빌로니아 지역권을 중심으로 연구사를 서술하고자 한다.

6) 그가 이런 내용의 연설을 한 것은 1925년 라이프치히(Leipzig)에서였다. 당시 그의 이러한 생각은 그의 동료나 제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그의 생각이 현실화되어 사전 작업이 착수된 것은 2차 세계대전 때에 그가 미국의 시카고 대학으로 거처를 옮긴 이후였다.

7) The Assyrian Dictionary of the Oriental Institute of the University of Chicago가 그 결과물이다. 고대 근동학의 가장 중요한 연구의 도구로 약어로는 CAD로 불린다. 총 26권의 방대한 사전작업은 1956년부터 2010년까지 이루어졌다.

나 왕가의 문서를 중심으로 문학과 정치사, 전쟁사 등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하지만 이때부터 이전에 그리 주목받지 못하던 무수한 법률문서와 행정문서, 경제문서 등을 토대로 경제와 무역, 사회, 생활사 방면의 연구들이 진행되었다.⁸⁾ 본 연구에서는 200년 동안 세 번에 걸친 고대 근동 연구사의 중대한 전환점을 그 주제와 연구방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각각의 시대 상황과 연계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1-2) 이집트

*제목: 나일 강을 따라 천 마일: 이집트학의 발전과 과제

고대 이집트에 대한 관심은 그리스-로마 시대부터 시작하지만, 일부 고전 저술들을 제외하면 고대 이집트에 대한 지식은 미지의 것에 대한 동경이나 편견에 불과했다. 중세 유럽은 성경을 통해 이집트를 이해하려 하였고, 아랍인들은 이집트를 지혜의 보고로 신비화했다. 르네상스와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문명의 시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대 이집트에 대한 실증적 관심과 함께 근대 이집트학의 싹이 생성된다. 본 연구는 근대 학문으로서의 이집트학의 발전을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를 특징짓는 방법론과 연구 주제 등을 정리할 것이다. 아울러 역사적인 핵심 저술을 소개하고 이집트학의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논할 것이다. 이집트학 발전의 제1단계는 왕의 계곡 무덤의 발견(1815년), 그리고 성각 문자의 해독(1822년)으로 시작한다. 이 단계의 이집트학은 왕이나 귀족의 후원에 의한 엘리트 학자 중심의 학문이었다. 하지만 발굴은 비계획적이었으며 약탈과 도굴에 가까웠다. 제2단계 이집트학의 특징은 마구잡이식의 발굴이 통제된 발굴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성층 발굴과 도기 유형을 통한 상대적 연대 측정이 가능해졌다. 이때부터 이집트학은 비로소 학문의 요소를 갖추기 시작한다. 1945년 이후 3단계 이집트학의 특징은 ‘다양성’이다. 이집트학 내에 많은 소분야들이 생기며, 그 분야들이 전문화되어 한 학자가 다른 분야의 전문 논의들을 따라가기 힘들 정도가 된다. 방법론에 있어서도 새로운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클리포드 기어츠의 “중층적 기술”의 사회 인류학적 개념을 적용하여, 이집트 유물, 상징들을 고대 이집트 사회 전반, 즉 정치, 종교, 문화,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는 시도들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위성 사진이나 원격감지기술이 고고학 조사에 활용되고 있다. 앞으로 이집트학은 다양한 분과 연구들을 종합하여 이집트 문명에 대한 새로운 ‘내러티브’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왕-엘리트 중심적 역사에서 벗어나 고대의 보통 이집트인의 삶과 생각에 접근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집트학의 저변을 서양에서 제3 세계로 확장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8) 이때 신아시리아 연구자들은 신아시리아 시대가 문명의 요람 역할을 했다고 간주하며 “바빌론의 공중정원”이나 “바벨탑” 같은 고전적 주제에 대한 새로운 견해들을 내놓았다.

1-3) 시리아/팔레스타인

*제목: 시리아/팔레스타인 고고학 역사와 전망: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논쟁점들

국내 학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시리아/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난 200여 년간 고고학적 연구는 선사시대부터 오토만 시대에 이르기까지 괄목할 만한 성과와 발전을 이룩해왔다. 방대한 연구 결과는 정리하기도 힘들 정도이며, 현재에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고학사를 총 일곱 시기로 나누고, 이 지역의 물질문화 및 문명 연구사를 다음과 같은 쟁점 위주로 살펴볼 것이다. 첫째, 농경, 도시, 성벽, 도구, 문자 등과 관련된 인류의 정착과 문명 발달사이다. 둘째, 고대문명 세력의 각축장인 시리아/팔레스타인 지역에 외부 세력(이집트, 메소포타미아, 히타이트, 그리스/로마 등 문명)이 끼친 물질문화 역사이다. 셋째, 인류가 남겨놓은 물질문화를 과거를 읽어 내는 텍스트로 이해하여, 글자로 전해진 사료(성서와 비문)와의 상호관련성 검토이다. 넷째, 역사 해석 및 연대설정과 관련된 최대 주의자/최소주의자 논쟁이다.

시리아/팔레스타인의 고대 물질문화와 문명 연구 결과는 단순히 과거사 연구에 그치지 않는다. 현대 사회의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논의와 연관되어 있기에 현대적 의의를 지닐 뿐만 아니라 고대문명 세력 간 충돌 지역으로서 여러 고대문명의 영향력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이 연구사 정리가 이 지역 고고학적 연구의 초석을 놓는 작업이 될 것이다.

1-4) 인도

*제목: ‘인더스 문명’의 정체와 역사 전쟁

193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인더스 문명의 발굴 작업은 아리아인의 기원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힌두 민족주의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발굴 이전에는 당시까지 최고(最古)의 문명으로 알려진 베다의 아리아 문명 시기를 기원전 2750~2500년 인더스 문명 발상 시기 이전으로 책정하여, 인더스 문명의 주인공 역시 아리아인으로 보아 아리아 문화의 영광을 지속할 수 있었다. 이는 결국 아리아인이 인도에서 기원한다는 이론으로 연결된다. 아리아인들의 외부 도래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생태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인더스 문명이 멸망한 시점 이후에 아리아인들이 도래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인도 기원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메말라 사라진 사라스와띠에서 인더스 문명이 발생하였고 아리아인들이 사라스와띠강이 마르게 된 기원전 1900년경 이전에 이미 이동하여 리그 베다 문명을 발전시켰다고 주장하는 것이다(Lal, 1998, 121).

그렇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생태 환경의 변화와 사라스와띠가 인더스 문명의 기원이자 아리아인의 요람이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사라스와띠’라는 이름이 단지 인더스 문명의 요람이기 때문에 강의 으뜸(naditama)으로 찬양된 것이 아니라, 고대 인도인들이 팽창하면서 중요한 의미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사용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라진 사라스와띠가 베다의 사라스와띠라는 주장에 많은 의문의 여지가 있는 셈이다. 그 주장의 핵심 구조는 ‘사라스와띠’를 기존 학설의 ‘인더스’에 대비하여, 인더스가 위치한 파키스탄보다 인도에 위치한 사라스와띠를 궁극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이다. 그 작업을 주로 고고학에 의존하고 있다. 예컨대 굽타는 1947년 인도-파키스탄의 분리로 모헨조다로와 인더스가 파키스탄에 속하게 됨으로써, 신생국인 파키스탄이 졸지에 가장 오래된 고대 문명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에 분개한다. 따라서 사라스와띠 강이 인도의 국경에서 출발하고, 그 영역이 현재 인도 공화국의 수도인 뉴델리(New Delhi) 인근인 미러뜨(Meerut)까지 연결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인더스 강 유역에서 100개 정도의 유적지가 발굴되었으나, 사라스와띠 강 유역에서는 700개나 되는 압도적으로 많은 유적지들이 발굴되었다는 주장을 통해 인더스보다 사라스와띠가 역사적으로 훨씬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Gupta, 1995, 183). 그의 주장에는 각가르(Ghaggar)-하끄라(Hakra) 강이 사라스와띠의 지류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는데(Gupta, 1995, 182~183), 고고학자 무갈(Mughal, 1979, 91)과 아그라왈(Agrawal, 1984, 139) 등은 각가르-하끄라 강을 인더스 강의 지류로 보고 있어, 굽타의 분류에 일방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

많은 취약점을 안고 있음에도 사라스와띠를 아리아 문명의 중심지로 설정하고 그를 근거로 하여 아리아인의 인도 기원설을 주장하는 것은 인도 역사와 문명의 모태가 힌두 신화 세계의 대표적 성지인 사라스와띠라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인도 국민당(Bharatuya Janata Party)과 같은 힌두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정치 세력의 정당성을 역사적으로 극대화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는 회의당이 40년 넘게 유지해 온 국가 중심의 정치 체제와 문화가 사라지고 그 공간을 대체하는 근대적 정치 체제가 들어서지 못하는 198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오늘에 이른다. 이 연구는 인더스 문명의 정체를 둘러싼 논쟁을 정리하면서, 특히 사라스와띠와 아리아 문명을 결합하려는 힌두 근본주의에 입각한 민족주의적 연구에 비판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1-5) 중국

*제목: 방대한 출토 자료의 이면: 중국 문명 연구의 지역주의와 신고

기원전 1세기 사마천의 『사기』 출간 이래로 중국처럼 고대사 관련 문헌이 활발하게 산출된 지역은 드물 것이다. 그렇지만 근대적 의미의 중국 고대문명 연구는 이전 학자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1899년 갑골문의 발견이 그 중대한 계기를 제공했다. 이때부터 서양 학자들의 중국 현지 발굴과 연구 역시 본격화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120년 동안의 중국 문명 연구를 관통하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로 “방대한 고고학 자료”와 “지역주의”, “의고(疑古)/신고(信古) 논쟁”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뒤의 두 주제를 검토하기 위한 전제로서 제1장은 중국 문명 이해의 물줄

기를 바꾼 주요 발굴에 대한 간략한 고고학사이다. 제2장은 지역주의를 두 가지 층차로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세계 고대文明 연구의 흐름 속에서 중국 文明 기원 연구가 지역화되는 양상으로, 20세기 초 서양학자들이 제기했던 서방 전래설이 중국 학계의 확고한 자생설을 거치며 최근 재조정되는 과정까지 다룰 것이다. 둘째, 중국 학계 내에서 논의되는 지역주의 양상으로, 1979년 쑤빙치(蘇秉琦)가 제기한 이른바 구계유형론(區系類型論)이 초래한 중국 文明의 다원론과 여전히 위력을 떨치고 있는 황하文明 중심론의 길항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 제3장은 방대한 고고학 자료를 이해하는 핵심 논점 중 하나인 중국 고문헌에 대한 신뢰와 불신, 즉 이른바 신고와 의고 관점에 대한 검토이다. 19세기 말 일본에서 최초로 제기된 의고적 인식이 20세기 초 구제강(顧頡剛)에 의해 정치하게 다듬어져 서양 학계와 호응하게 되는 이론적 기반을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1990년대 이후 리쉐친(李學勤)과 리링(李零)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중국학계에 대세적 흐름으로 자리하고 있는 신고적 인식의 이론적 배경과 함께 이를 둘러싼 서양학계와의 논쟁까지 살펴볼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중국 文明 기원 연구의 역동적인 흐름을 간파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2차년도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팔레스타인, 인도, 중국의 네 지역이 文明화되어 가는 여정으로 “文明 전야” 혹은 “文明으로의 길”이 공통 주제이다. 총론까지 포함하여 모두 5편의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역시 통일성을 기하기 쉽지 않은 주제이지만 대체로 두 방면의 연구로 나누어진다. 첫째, 文明 혹은 국가 단계 진입 직전의 특이한 양상으로, 메소포타미아의 이른바 “우룩 팽창”과, 중국의 룡산(龍山) 시대 후기 “성곽도시”, 인도의 “몬순 아시아 최초 도시”를 둘러싼 논쟁을 다룰 것이다. 주로 고고학 자료에 의존하는 연구이다. 둘째, 이스라엘의 경우 고대文明 형성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끼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종교의 발명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른 세 지역의 연구가 주로 도시와 국가의 시원 문제에 치중한다면, 시리아-팔레스타인 지역의 연구는 종교의 시원 문제를 다룬다. 즉 다신교적 환경에서 유일신교가 태동하는 과정을 물질 및 문서 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구명하려고 한다.

총 아홉 편의 연구를 종합할 마지막 총론에서 각 지역의 고대文明이 정립되어가는 다양한 모습을 비교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지역별 연구와 총론의 예상되는 제목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 메소포타미아

*제목: 文明의 조건: ‘우룩 팽창’ 논쟁을 중심으로

기원전 제3천년기 서남아시아에서 출현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도시와 국가가 등장한 문명이다. 하지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탄생은 신석기 시대 초기 이래로 시작된 종교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영역에서의 다양한 혁신들이 누적된 결과이지, 선사시대와의 단절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다. 특히 문명이 발생하기 바로 직전 단계인 우룩기(Uruk period: 기원전 4000년~3100년)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토대가 되는 결정적인 시기였다. 이 시기에 이르러 메소포타미아 남부 저지대 도시 문화가 북부 시리아, 북부 메소포타미아, 터키 남동부, 이란 남서부 및 일부 고원지대 등 광범위한 지역으로 급속도로 확산하였다. 이처럼 남부 메소포타미아적 요소가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학계에서는 ‘우룩 팽창(Uruk expansion)’이라고 부른다. 문제는 우룩 팽창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놓고 학계에서 의견이 분분하다는 점이다. 1989년에 기예르모 알가제(Guillermo Algaze)는 남부 메소포타미아 저지대의 수메르인이 강력한 농업 생산력과 수운(水運) 상 이점을 십분 활용하면서, 교통로 상의 교두보에 식민 도시를 건설하고 장거리 교역과 군사적 지배를 통해 주변 지역에 대해 헤게모니를 행사했다고 보았다. 그는 또한 ‘우룩 팽창’의 본질이 저지대 수메르인의 주변 지역에 대한 경제적 수탈, 즉 ‘제국주의’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당시 학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고, 이후 그의 주장에 동조하는 측과 반론을 제기하는 측 간에 열띤 논쟁이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전에 나타난 주요 혁신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면서 지난 30년간 ‘우룩 팽창’ 논쟁에서 제기된 다양한 가설들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

2-2) 시리아/팔레스타인

*제목: 유일신교의 역사적 기원

고대 이스라엘이 인류 문명에 선사한 가장 큰 선물이 유일신교일 것이다. 현재 세계 인구의 약 57%가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유일신교에 토대한 기독교(31.11%), 이슬람교(24.9%), 유대교(0.2%)를 신앙하고 있다. 하지만 고대 근동의 다신교 문화에서 유일신 사상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 과정은 국내에서 자세히 연구되거나 소개되지 않았다. 유일신교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연구도 19세기에서야 시작되었는데, 이집트학의 발전으로 아켄아텐의 ‘유일신교’가 세간에 알려지면서 그것을 모세의 유일신교와 연결시키는 노력(e.g.,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인간 모세와 유일신교>)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노력들은 유일신교를 모세 시대의 산물로 전제한 것으로 오늘날 학계에서는 이 전제 자체가 무너졌다. 최근의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유일신교를 특정 시점의 신적 계시나 지성적 깨달음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걸쳐 이루어진 종교적 진화 혹은 발전의 결과로 이해한다. 그리고 종교 발전의 단계들을 문헌과 고고학 증거를 통해 구분하여 설명하고, 한 단계의 종교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촉매가 된 사회정치적 사건들을 재구성한다. 유일신교의 기원에 관한

역사적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은 유일신교를 다신교와 대극적인 이물(異物)로 파악하기보다 그 둘의 연속성에 주목한다. 또한 이스라엘과 주변 가나안 민족 사이의 문화적 연속성에도 주목한다. 본 논문은 유일신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기존의 논쟁들을 정리하고, 유일신교와 관련된 문헌 및 고고학 증거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한 후, 그것에 근거해 유일신교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독립적 제안을 할 것이다. 특히 배타성과 불관용을 유일신교의 본질로 규정한 얀 아스만(“유일신교의 댕가”)의 인식이 옳은지, 유일신교가 기원한 역사적 상황을 메소포타미아의 ‘유사 유일신교’(pagan monotheism)와 대조하며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2-3) 인도

***제목: 인더스 대평원 최초의 도시: 왜 그곳에서 문순아시아 최초의 도시가 성장했나?**

초기농경 마을은 문순의 영향을 크게 받는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거대 강 유역 및 그곳으로 합류하는 지류 주변의 평원, 호수 주변, 저습지, 산기슭 등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중 많은 지역에서 기원전 약 3,000년 무렵부터는 제법 큰 규모의 마을이 성장하였으나, 수만 명 이상의 인구를 지닌 도시가 최초로 성장하고, 도시에 기반을 둔 복합사회(Complex Society)가 발전한 곳은 인더스 대평원과 그 주변 지역이었다. 19세기 후반 그 존재가 알려졌고, 20세기 초반 영국인 고고학자의 발굴조사를 통해 그 전모가 드러난 인더스 문명(Indus Civilization)의 도시들은 발견 당시에는 메소포타미아의 엘리트 이주민 집단들에 의해 건설된 일종의 식민도시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지난 100여 년 동안의 고고학 연구를 통해 이 지역의 농경마을 중 일부가 점진적으로 도시로 성장·발전하였고, 이들 도시민이 특히 상공업 등에 유리한 지역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면서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복합사회가 발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여전히 지역 대부분의 인구는 농·목축, 어업, 가내수공업 등의 전통적 경제활동에 기반을 두어 삶을 영위하였지만, 도시 시민들은 문순아시아 최초의 문명인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 걸쳐 이전 시대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삶을 영위하였다.

이 연구는 우선 인더스 문명의 기원 혹은 발전 과정에 대한 그간의 고고학 연구 성과와 주요 고고학 유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왜? 어떻게? 이 지역에 문순아시아 최초의 도시와 복합사회가 등장할 수 있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수백 년 혹은 천 년 이상이 지난 이후에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곳곳에서 성장한 최초 도시사회의 성립과정과 비교해보면 인더스 대평원 및 주변 지역에 최초의 도시사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특별한 여건들’에 대해 흥미로운 고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인류 사회가 왜, 어떻게 문명사회에 진입하게 되었는가를 인도 및 주변 지역에 초점을 두어 검토함으로써, 세계 고대문명 형성에 대한 비교문명사적 보편성과 특수성 이해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2-4) 중국

*제목: 도약과 몰락의 교차로: 중국 문명 성립의 여정

중국 농경사회는 황허강과 양쯔강 그리고 랴오허강 수계를 따라 다채롭게 발전하였다. 기원전 3000년기에 들어 고도로 발전한 복합농경사회는 문명 성립의 전야에 접어들게 된다. 이 시기에 들어 초보적인 형태의 청동기가 사용되고 원시적인 문자가 등장함은 물론 계층화된 사회와 집단화된 지역적 취락 조직을 바탕으로 거대한 성곽을 갖춘 도시가 출현했다. 의례 공간을 중심으로 형성된 성곽도시는 중국 전역에 걸쳐 거의 동시에 등장하며 점차 광역에 걸쳐 지배권을 행사하기 시작한다. 타오쓰(陶寺), 랑주(良渚), 스자허(石家河) 유적 등에서 관찰되는 발달한 복합사회는 고도로 계층화된 정치체계를 형성했으며, 지배층은 의례권력을 기반으로 그 정치적 지위를 획득하고 유지했다. 그런데 이들이 국가, 즉 문명의 단계에 진입했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는 예외 없이 기원전 3000년기 후기에 들어 돌연 고고학적 기록에서 사라진다. 그에 대신하여, 흥미롭게도, 이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톈양(洛陽) 인근에서, 중국 최초의 문명 출현을 상징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얼리터우(二里頭) 유적이 건설되고 번영했다. 이 연구는 중국 문명 성립의 과정을 통시적인 시야에서 관찰하여 그 배경과 조건이 어떻게 문명 성립에 기여하게 되었는지, 문명 성립의 전야에서 흑자는 왜 몰락하고 흑자는 왜 돌연 성장하게 되었는지를 비교사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한다. 인류 사회가 어떻게 문명사회에 진입하게 되었는지를 중국에 초점을 두어 검토함으로써 전 지구적 시야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추구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2-5) 총론

*제목: 고대문명 연구와 기원의 다양한 노정: 비교사적 검토

이 연구는 본 프로젝트의 결과를 비교 검토할 도전적 시도이다. 총 아홉 편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진행되는 만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단하기는 아직 조심스럽다. 다만, 1년 차의 다섯 문명에 대한 연구사 부분과 2년 차의 “문명 기원” 문제 각각이 한 장씩 차지할 것이다. 두 장 모두 본 프로젝트에서 진행될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서, 공통된 논쟁거리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예를 들어, 1장 연구사의 경우 근동과 인도, 중국 고대문명 연구를 주도한 서양 연구자들의 역할과 함께 각 지역에서 발견된 문자나 대표적 고고학 유적을 둘러싼 해석의 양상이 비교사적 검토의 좋은 대상이다. 2장의 경우 메소포타미아와 인도, 중국의 최초 도시 출현과 그 발전 과정이 고대문명 형성의 보편성뿐만 아니라 지역별 특수성까지 살펴볼 수 있는 귀한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앞에서 명시한 대로 이 총론의 최종 집필은 연구책임자가 맡지만, 2년 동안 거의 총 16차에 걸쳐 진행될 세미나(6. 추진일정 참조)에서 모든 구성원의 활발한 토론을 거쳐 그 내용이 구체화되리라 기대한다. 최종 집필 과정에서의 협력도 필수적이다.

3. 연구진 구성 및 역량

1) 연구진 구성 및 역할 분담

총 8명으로 구성된 연구진은 모두 고대사와 고고학 전공자들로, 고대 근동과 인도, 중국, 지중해 지역을 커버한다. 대부분이 해외의 우수 전문기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각자 맡은 지역에 능통하다. 근동과 인도, 중국 전문가가 지역별로 4명 혹은 2명씩 복수로 배분되어 있어서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하다. 세 지역 모두 고대사와 고고학 전공자로 구성되어 상호 보완적이다. 연구자 모두 논문 한 편 혹은 두 편을 전담해서 맡으며, 같은 지역의 다른 연구자가 전담하는 연구의 보조와 비평가 역할까지 담당할 것이다. 마지막 총론은 연구책임자가 집필하지만, 사실상 공동 작업의 형태를 취할 것이다. 박사학위 수여 연도에 따른 참여 연구자의 수가 1990년대 2명, 2000년대 2명, 2010년대 4명으로, 소장 학자와 중견 학자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다. 각자의 구체적 연구 역할 분담 내용은 아래의 표에 제시되어 있다.

참여구분	소 속	연구역할분담내용	연구보조원 활용인원수
	성 명		
연구책임자	단국대	연구 총괄: 1-5)9) 중국 “연구사” 및 2-5) 총론 집필; 2-4) 중국 “문명 전야”(공F10) 전담) 보조와 토론 담당	1
	심재훈(역사)		
일반공동연구원A	고대文明연구소	1-1) 메소포타미아 “연구사” 집필; 2-1) 메소포타미아 “문명 전야”(공B 전담) 및 1-2) 이집트 “연구사”(박사급연구원 전담) 보조와 토론 담당	
	김아리(역사)		
일반공동연구원B	단국대	2-1) 메소포타미아 “문명 전야” 집필, 1-1) 메소포타미아 “연구사”(공A 전담) 보조와 토론 담당	
	박성진(고고학)		
일반공동연구원C	서울장신대	1-3) 시리아/팔레스타인 “연구사” 집필; 2-2) 시리아/팔레스타인 “문명 전야”(박사급연구원 전담) 보조와 토론 담당	
	강후구(고고학)		
일반공동연구원D	부산외국어대	1-4) 인도 “연구사” 집필; 2-3) 인도 “문명 전야”(공E 전담) 보조와 토론 담당	
	이광수(역사)		

일반공동연구원E	고대문명연구소	2-3) 인도 “문명 전야” 집필; 1-3) 인도 “연구사”(공D 전담) 보조와 토론 담당	
	김용준(고고학)		
일반공동연구원F	송실대	2-4) 중국 “문명 전야” 집필; 1-4) 중국 “연구사”(연구책임자 전담) 보조와 토론 담당	
	김정열(고고학)		
박사급연구원	단국대	1-2) 이집트 “연구사” 및 2-2) 시리아/팔레스타인 “문명 전야” 집필; 1-3) 시리아/팔레스타인 “연구사”(공F 전담) 보조와 토론 담당	
	김구원(역사)		

2) 연구진 역량

모든 연구자가 각자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다. 특히 총 8명의 참여자 중 4명(강후구, 김구원, 김용준, 심재훈)이 SCI급 저명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여 국제적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아래에 제시될 각자의 연구 이력을 통해, 모든 참여자가 탄탄한 연구역량을 갖춘 책임자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책임자** 심재훈은 현재 단국대 사학과 교수로 1998년 시카고대학 동아시아 언어문명학과에서 서주사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새로운 출토자료를 활용한 중국 고대사 연구에 치중하여, 현재까지 45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들 중 일부가 *Toung Pao*와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Journal of Asian Studies*, *Archiv Orientalni* 등 해외 저명 학술지(SSCI와 A&HCI 등재)에 출간되었다. 주요 저서로 『청동기와 중국고대사』(2018)와 『중국 고대 지역국가의 발전: 진의 봉건에서 문공의 패업까지』(2018; 2019년 아시아학자세계총회 ICAS 우수도서상)가, 역서로 『고고학 증거로 본 공자시대 중국사회』(2011; 한국연구재단 명저번역) 등이 있다. 교육부 토대연구사업 “해외 동아시아학 연구 성과(문헌) DB 구축: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2013~2016)의 연구책임자로 2017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에 선정되었다. 한미교육위원회(Fulbright)와 일본 학술진흥회(JSPS), 푸단(復旦)대학의 펠로십을 받았다.

■ **공동연구원A** 김아리는 2019년 프랑스 파리1대학(Panthéon-Sorbonne)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는 『신바빌론시기 거대기관의 법과 행정 관행』이었다. 박사학위 취득 후 신바빌론 법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주제(절도, 간통문구, 종교범죄, 농업 관련 직업적 실수와 범죄)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역사교육에도 관심을 가지고 교과서 분석에 관한 논문을 게재한 바 있다. 현재 프랑스 국립학술연구센터(CNRS)소속 ArScAn-HAROC 연구팀을 기반

9) 앞의 2장 연구방법 및 내용에 제시된 지역별 번호이다.

10) “일반공동연구원E”의 약자로 이하 동일한 방식으로 표기한다.

으로 하는 썩기문자해독팀(DCA)의 일원으로 십파르에서 나온 문서들을 해독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신바빌론 가부장의 권한과 그 한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공동연구원B** 박성진은 현재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8년 파리X-낭테르대학교 고고학과에서 선사고고학으로 박사학위(지도교수: Hélène Roche와 André Debénath)를 받았다. 현재 고대 문명 간 장거리 교역, 선사시대 기술체계, 고고학사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있다. 1998년 석사학위취득 이후 지금까지 고인류와 현생인류 간의 생업 및 기술체계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해 왔다. 최근 들어 대한제국기 근대 학문으로서의 고고학의 유입 과정에 관해 천착했으며, 현재 라피스라줄리 교역을 비롯한 고대 문명의 경계를 넘나드는 장거리 교역품들에 관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13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한국연구재단 발주 토대연구 “해외 동아시아학 연구 성과(문헌) DB 구축: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에서 전임연구원으로 활동하였다.

■**공동연구원C** 강후구는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에서 고고학을 전공하여 2013년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서울장신대학교 교양학과 부교수로 재직중이다. 2편의 저서(1편 단독, 1편 공저), 26편의 논문(SCI급 2편[공저], A&HCI급 3편[1편 단독, 2편 공저], KCI급 8편, 발굴 보고 논문 4편, 일반논문 9편)과 3편의 서평을 가지고 있다. 최근까지 이스라엘의 발굴 지역 책임자로 활동한(Khirbet Qeiyafa 2007-2010년, Tel Lachish 2013-2017년) 현장 연구가로서, 국내학술대회(2013-2019년, 11회)와 국제학술대회(2009-2017년, 9회)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였고, 발굴보고서를 출판하였다. 강후구는 고고학적 한계성을 인식하면서 문서와 물질자료를 바탕으로 고대의 문명 조명과 역사 재건에 관심을 가지며 연구하였고, 고고학적 연대 논쟁에 깊이 관여해 왔다. 대표적 저서와 연구로는 「Khirbet Qeiyafa Vol. 6. Excavation Report 2007-2013: The Iron Age Pottery」, 「성서와 고고학: 이스라엘 정착부터 시삭 침공까지」, ‘이스라엘 핀켈쉬타인(Israel Finkelstein)의 ‘저연대 (Low Chronology)’ 주장에 대한 고고학적 고찰’, ‘Finger-impressed Jar Handles at Khirbet Qeiyafa: New Light on Administration in the Kingdom of Judah’ 등이 있다.

■**공동연구원D** 이광수는 1994년 델리대학교(University of Delhi) 대학원에서 *Korea's Cultural Contacts with Early India: A Study in Ideas and Rituals*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대 인도 불교사와 힌두교사를 문헌을 통해 역사학적 시각에서 연구하고 있다. 고대 인도의 종교가 사회경제사적으로 어

떻게 변화를 해왔고, 그것이 역사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근현대사와 관련하여 역사 논쟁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하여 논문과 저·역서를 다수 발표하였다. 현재 부산외국어대학교 인도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 **공동연구원E** 김용준은 2008-2017년 인도 데칸(Deccan)대학 고고학과에서 인도 고고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인도 내 선사시대 암각화 유적, 인더스 문명, 철기시대 거석무덤, 고대 불교 유적 등 다수의 고고학 발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그 중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데칸대학 고고학과와 서울대학 인류학 및 고병리학 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해온 인더스 문명 매장유적에 대한 고고학 및 인류학 연구가 대표적이다. 현재까지 6편의 논문을 SCI급 학술지에 공저로 게재했다. 2019년부터 한국문화재단이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진행 중인 고대문화유산 국제협력 프로젝트에 고고학 분야 연구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 **공동연구원F** 김정열은 2000년 숭실대학교 대학원에서 『서주 지배체제의 성립에 대한 연구』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은 다음 중국으로 건너가 2007년 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에서 『西周公共墓地研究』로 다시 역사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출토문헌과 고고 자료를 활용하여 주로 중국 청동기시대와 서주시대사를 고고학적, 역사학적 시각에서 연구하고 있다. 중국 중원 및 동북 지역 선사문화 발전 과정, 문명의 출현과 발전, 고대국가의 성립 및 그 지배체제의 특성, 중국 청동기 및 고고학사에 관련된 논문과 저·역서를 다수 발표하였다. 현재 숭실대학교 사학과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 **박사급연구원** 김구원은 미국 시카고대학의 근동언어문명학과에서 고대 셈어(북서셈어와 아카드어)와 함께 근동 역사를 폭넓게 공부했고, 박사논문(2010)이 Brill의 Vetus Testamentum Supplement 시리즈로 출판되었다.¹¹⁾ 꾸준히 고대 이스라엘 역사를 포함한 고대근동의 역사를 연구해 왔다. 반 드 미에롭의 『고대 근동 역사』(2010)와 이안 프로방의 『이스라엘의 성격적 역사』(2013)를 번역 출판하였고, 고대 근동 역사의 사료집인 제임스 프리처드의 『고대 근동 문학 선집』(2016)도 공역 출판하였다. 이외에도 해외 저널(A&HCI 등재)에 고대 셈어 문헌학과 역사 관련 논문도 게재하였다. 2018년에 우가릿인들의 ‘효’ 의무를 서술한 점토판 문서를 문헌학적으로 분석한 논문 “List of Filial Duties: Its Narratological Role in the ‘Aqhatu Story”이 Semitica 60호로 출판되었고, 같은 해 바알의 꿈 이야기가 담긴 점토판을 문학적으로 분석한 논문 “When

11) Koowon Kim, *Incubation as a Type-scene in the Aqhatu, Kirta and Hannah Stories: A Form-critical and Narratological Study of KTU 1.14 I-1.15 III, 1.17 I-II, and 1 Samuel 1:1-2:11*, (Leiden: Brill, 2011).

Even the Gods Do Not Know: El's Dream Divination in KTU 1.6 iii”이 Ancient Near East Monograph 시리즈의 일부로 출판되었다. 이스라엘의 왕정 성립 과정을 다루는 역사서인 사무엘서에 대한 주석을 우리말과 영문(Langham 출판사)으로 출판하였으며, 이 외에 구약 성서에 관한 저서와 번역서, 논문이 다수 있다.

4. 결과 활용방안

1) 학문의 균형 발전

유럽이나 중국에서 오랜 역사를 지닌 그리스/로마나 고대중국에 대한 연구를 제외하면, 고대문명 연구는 19세기부터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를 중심으로 본격화되었다.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이 이를 선도했고, 연구의 범위 역시 시리아/팔레스타인이나 인도, 중국까지 확대되었다. 20세기 들어 미국이나 일본 등도 연구에 동참하며 뛰어난 성과를 축적해오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고대문명에 대한 수준 있는 연구를 산출해온 주체가 대체로 그 문명의 발상지와는 무관한 선진국들이라는 점이다. 고대문명에 대한 탐구가 제국주의라는 정치적 목적과 연관된 측면도 없지 않지만, 연구 자체는 인류의 초기 발전에 대한 순수학문적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고대문명 연구가 선진국형 순수학문이라는 점에 국내의 열악한 현실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 그 발전의 와중에 학문적 호기심에 이끌려 어려움을 감수하며 고대문명을 공부한 본 연구팀의 구성원들이 배출될 수 있었다. 이제 한국 역시 전 세계적 보편성을 지니는 고대문명 분야 같은 인문학 연구에 당당히 동참할만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고대문명연구소의 강연과 다른 교류를 통해 구성원들의 학문적 내공을 확인한 지원자들은 본 연구가 국내 학문의 균형 발전을 한층 앞당길 수 있으리라 믿는다.

2) 진정한 세계화

본 연구팀의 구성원들은 종사하는 학문의 속성상 누구 못지않게 국제화의 최전선에 자리하고 있다. 세계 학계와의 소통 없이는 불가능한 본 연구의 과정에서 바람직한 세계화의 일단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타자에 대한 이해가 자신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촉진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 연구를 통해 그동안 그 큰 무게에도 불구하고 경시될 수밖에 없었던 세계 고대문명이라는 타자에 더욱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진정한 세계화에 일조할 수 있길 희망한다.

3) 상상력 고양

고고학과 고대사는 4차 혁명 시대에 더욱 강조되는 창의력과 상상력의 원천이다. 초기 문명이 거쳐 온 다양한 궤적과 성취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인류의 현재는 말할 것도 없고 미래까지도 구성할 근간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한국인들이 고대문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상상력은 대체로 한국이나 동아시아로 제한되어 있다. 연구를 통해 파생되는 대중을 향한 지식이 대체로 그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최초로 세계 주요 고대문명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본 연구가 더욱 다양한 상상력의 원천이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4) 교육적 효과

본 연구팀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국내에 기반이 약한 분야를 공부하며 학문적 충격을 경험했다. 각자 어렵게 공부한 내용을 국내의 독자들을 위해 발표하는 일은 그 자체로 의미심장한 일이다. 특히 본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인 1-2년 차의 연구 성과를 단행본으로 출간한다면, 상당한 교육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지식 저변 확대로 인해, 현재 외국의 우수 대학원에서 고대문명을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들이 꽤 있는 것처럼, 앞으로 이 분야를 공부하려는 후학들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당장 국내에서 이들의 학문적 호기심을 100% 충족시키기는 어렵겠지만, 본 연구가 그 궁극적 목표를 향한 물꼬를 틀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5. 기타사항

1) 공동연구의 필요성

학문은 기본적으로 홀로 하는 외로운 싸움이지만 연구 기반이 확보되지 않은 소외학문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사회적 동물이라는 인간의 속성상 공명(共鳴) 없는 외로운 싸움을 지속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팀의 구성은 고대문명 연구자들을 모으는 학문공동체의 결집만으로도 의미를 지닌다고 믿고 싶다. 학문적 차원에서도 다른 시대에 비해서 자료가 부족한 고대를 다루는 연구는 다른 지역들과의 비교적 관점이 더욱 중시될 수밖에 없다. 본 공동연구가 이러한 갈증을 해소해주리라 기대한다.

2) 국제화 문제

앞 장에서 본 연구팀이 지닌 국제화의 장점을 강조한 바 있다. 연구자 각각이 자신의 분야에서 세계 학계를 주도하는 연구자들과 소통 네트워크를 지니고 있다.

고대문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각 분야의 석학들로 구성된 해외자문위원(Overseas Advisory Committee)의 면면을 확인할 수 있다 (<https://irec.study/people.html>). 다만 본 연구팀을 구성한 주목적이 국내 고대 문명 연구자의 결집과 한국적 세계 고대문명 연구 체계 구축에 있으므로, 굳이 국제화를 내세우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우리의 필요에 따라 정기포럼이나 국제학술 대회에 해외자문위원이나 다른 전문가들을 초빙하는 등 국제 학계와 소통의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

3) 본 연구의 한계

한계 없는 연구는 없다. 본 연구 역시 마찬가지이다. 무엇보다 관련 연구의 저변 확대가 미약한 상황에서 연구팀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이집트 지역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아쉬움이 크지만, 이 정도의 팀이나마 구성할 수 있음에 안도 하며, “시작이 반”이라는 경구를 떠올린다.

6. 추진일정

2년과제 1차년도 과제목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시리아/팔레스타인, 인도, 중국, 고대문명 “연구사” 연구와 집필	
기 간 (추진년월)	내 용	비 고
2022년 7-8월	전체 연구 준비	
9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시리아/팔레스타인 연구사 집필진의 구상 설명회	1차 세미나
10월	인도와 중국 연구사 집필진의 구상 설명회	2차
12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시리아/팔레스타인 연구사 발표와 토론	3차
2023년 1월	인도와 중국 연구사 발표와 토론	4차
2월	1년차 연구 결산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3월	1년차 연구 정리	5차

2년과제 2차년도 과제목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시리아/팔레스타인, 인도, 중국, “문명 전야(문명으로의 길)” 연구와 집필	
기 간 (추진년월)	내 용	비 고
2022년 4월	연차보고서 작성	
6월	메소포타미아 “문명 전야” 구상 설명회	6차
7월	시리아/팔레스타인 “문명 전야” 구상 설명회	7차
8월	인도 “문명 전야” 구상 설명회	8차
9월	중국 “문명 전야” 구상 설명회	9차

10월	메소포타미아 "문명 전야" 발표와 토론	10차
11월	시리아/팔레스타인 "문명 전야" 발표와 토론	11차
12월	인도 "문명 전야" 발표와 토론	12차
2023년 1월	중국 "문명 전야" 발표와 토론	13차
2월	2년차 연구 결산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14차
3월	총론 집필 구상 설명회	

2년과제 3차년도 과제목표	연구 정리와 결과보고서 작성	
기 간 (추진년월)	내 용	비 고
2023년 4월	2년차 연구 정리	15차
5월	전체 연구 정리와 총론 발표	16차
6월	결과보고서 작성	

7. 참고문헌

1-1) 고대 근동사 200년, 세 번의 거대한 변화

- André-Salvini, Beatrice, 1999, “Les débuts de la recherche française en assyriologie Milieu et atmosphère du déchiffrement”, *Journal Asiatique* 287, pp. 331-355.
- Arnauld, T. Bill, and David B. Weisberg, 2002, “A Centennial Review of Friedrich Delitzsch’s Babel und Bibel Lectures”,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21, pp. 441-457.
- Assante, Julia, 1998, “The Kar.Kid/*ḫarimtu*, Prostitute or Single Woman? A Reconsideration of the Evidence”, *Ugarit-Forschungen* 30, pp. 5-96.
- Baumgarten, Jean, 2001, “Jules Oppert et la naissance de l’assyriologie”, *Histoire Épistémologie Langage*, tome 23, pp. 77-99.
- Beaulieu, Paul-Alain, 2002, “W. F. Albright and Assyriology”, *Near Eastern Archaeology* 65, pp. 11-16.
- Budge, E. A. W. 1925, *The Rise and Progress of Assyriology*. (London: M. Hopkinson and Co.)
- Charpin, D. 2015, *Comment peut-on être assyriologue?*, (Paris: Collège de France).
- Cooper, S. Jerrold, 1993, “Sumerian and Aryan: Racial theory, Academic Politics and Parisian Assyriology”, *Revue de l’histoire des religions*, tome 210, pp. 169-205.
- Delitzsch, F. 1902, *Babel und Bibel: Ein Vortrag* (Leipzig: Hinrichs, 1902).
- Finkel, Irving, 2014, *The Ark Before Noah: Decoding the story of the Flood*, (London: Hodder & Stoughton).
- Fossey, C. 1904, *Manuel d’assyriologie*, (Paris: Ernest Leroux).
- Fossey, C. 1932, “L’assyriologie au Collège de France: Jules Oppert (1825-1905)”, *Quatrième Centenaire du Collège de Franc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pp. 193-302.
- Foster, R. Benjamin, 2015, “Centre et périphérie: une perspective mésopotamienne”, *Devins et Lettrés dans l’orbite de Babylon, Travaux réalisés dans le cadre du projet ANR Mesphérph 2007-2011*, pp. 15-22.
- Frahm, E. 2006, “Images of Assyria in Nineteenth- and Twentieth-Century Western Scholarship”, in edited by S. W. Holloway, *Orientalism, Assyriology and the Bible*, Sheffield Phoenix Press.
- Frygare, J. 2005, *Assyriologi under nazisme: En kontekstuel undersøgelse af tre tekster af Wolfram von Soden fra 1936-38*,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penhagen.
- Glassner, Jean-Jacques, 1988, “Le Récit Autobiographique de Sargon”, *Revue d’Assyriologie et d’Archéologie orientale* 82, pp. 1-11.
- Holloway S. W. 2006, *Orientalism, Assyriology and the Bible*, Sheffield.
- Johanning, K. 1988, *Der Bibel-Babel Streit: eine forschungsgeschichtliche Studie*, (Frankfurt a. M.)
- Larsen, T. Mogens, 1995, “The Babel/Bible Controversy and its Aftermath”, *CANE I*, pp. 85-106.
- Lehmann R. G. 1994, *Friederich Delitzsch und der Babel-Bibel-Streit*, *OBO 133*, Freiburg-Göttingen.
- Lewis, Brian, 1980, *The Sargon Legend*, ASOR Diss., Series 4, (Etat-Unis: Cambridge).
- Lion, Brigitte, and Cecile, Michel, 2008, *Les écritures cunéiformes et leur déchiffrement*, Travaux de la MAE 4, (Paris: Edition de Boccard).
- Liverani, M. 2004, *Myth and Politics in Ancient Near Eastern Historiography*. (Sheffield: Equinox).
- Lyon, G. David, 1896, “A Half Century of Assyriology”, *The Biblical World* 8, pp. 124-142.

- Machinist, Peter, 2010, "The Road Not Taken: Wellhausen and Assyriology", *Homeland and Exile, Biblical and Ancient Near Eastern Studies in Honour of Bustenay Oded, Vetus Testamentum, Supplements*, vol. 130, pp. 469-531.
- O'Callahan, T. Roger, 1944, "Historical Parallels to Patriarchal Social Custom", *Th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6, pp. 391-405.
- Oelsner, J. 2006, "Der Altorientalist Benno Landsberger (1890-1968): Wissenschaftstransfer Leipzig-Chicago via Ankara", pp. 269-285. in *Baustein einer jüdischen Geschichte der Universität Leipzig*, edited by S. Wendehorst. (Leipzig: Universitätsverlag).
- Oppenheim, A. Leo, 1960, "Assyriology - Why and How?", *Current Anthropology* 1, 5/6, pp. 409-423.
- Panaino, A. 2002, "New Perspectives for an Intercultural Approach to the Science of Antiquity between East and West. Some Reflections on the Cultural Meaning of the Melammu Project", in A. Panaino - G. Pettinato (eds), *Melammu Symposia III*, Milano, pp. 1-12.
- Parpola, S. 2004, "Back to Delitzsch and Jeremias: The Relevance of the Pan-Babylonian School to the Melammu Project", in A. Panaino-Piras (eds), *Melammu Sy*
- Pollock, S. 1999, *Ancient Mesopotam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onchia, S. 2013, "Riflessioni Cent'anni dalla Polemica Babel -Bibel", *Revue d'Assyriologie et d'Archéologie orientale* 107, pp. 85-99.
- Smith, George, 1875, *The Chaldean Account of Gene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erderame, L. and A. Garcia-Ventura. 2020, *Receptions of the Ancient Near East in Popular Culture and Beyond*. Atlanta: Lockwood Press.
- Verderame, L. and A. Garcia-Ventura, 2020, *Perspectives on the History of Ancient Near Eastern Studies: An Introduction*, (Pennsylvania: Eisenbrauns).
- Vidal, J. 2015, "Reflexiones historiográficas sobre el Orientalismo Antiguo", pp. 25-36. in *Descubriendo el Antiguo Oriente. Pioneros y arqueólogos de Mesopotamia y Egipto a finales del s. XIV y principios del s. XX*. Edited by R. Da Riva and J. Vidal. (Barcelona: Bellaterra arqueología).
- Vita, J.-P. 2012, "La Asiriología según los asiriólogos" *Cadmo. Revista de História Antiga* 22, pp. 9-18.
- Weisberg, B. David, 2012, "Splendid Truth or Prodigious Commotion? : Ancient Near Eastern Texts and the Study of the Bible", *Leaders and Legacies in Assyriology and Bible: The Collected Essays of David B. Weisberg*, (Pennsylvania: Eisenbrauns), pp. 345-354.
- Westbrook, R. 1988, *Old Babylonian Marriage*, *Archive für Orientforschung, Beiheft* 23, (Horn: Verlag Ferdinand Berger & Söhne).
- Zaccagnini, C. 2003, "Nuzi", *A History of Ancient Near Eastern Law*, *Handbook of Oriental Studies*, (Leiden: Brill), pp. 565-617.

1-2) 나일강을 따라 천 마일: 이집트학의 발전과 과제

- Allen, Troy. 2007. "African Studies and the Problems in Egyptology." In *Handbook of Black Studies*, edited by Molefi Keti Asante and Maulana Karenga. (London, UK: Sage Publication), pp. 275-281.
- Allen J. and Thomas, N. 1996. *The American Discovery of Ancient Egypt*. (Los Angeles: Los Angeles County Museum).

- Armayer, O. K. 1978. "Did Herodotus ever go to Egypt?" *Journal of the American Research Center in Egypt* 15: pp. 59-73.
- Baines, J. and Málek, J. 1980. *Atlas of Ancient Egypt*. (Oxford: Phaidon Press Ltd).
- Beaucour, F., Laissus, Y., and Orgogozo, C. 1989. *La découverte de l'Égypte*. (Paris: Flammarion).
- Bednarski, Andrew. 2021. *A History of World Egyptology*.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 2020. "The Nature and History of Egyptology." In *The Oxford Handbook of Egyptology*, edited by Ian Shaw and Elizabeth Bloxam.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 2019. "Building a Disciplinary History: The Challenge of Egyptology." In *Towards a History of Egyptology*, edited by Hana Navráilova, Thomas L Gertzen, Aidan Dodson and Andrew Bednarski. (Münster: Zaphon), pp. 15-28.
- Bednarski, Andrew & Dodson, Aidan. 2019. *Towards a History of Egyptology: Proceedings of the Egyptological Section of the 8th Eshs Conference in London, 2018* (Investigatio Orientalis).
- Carruthers, W. 2014. *Histories of Egyptology: Interdisciplinary Measures*. (London: Routledge).
- Ceram, C. W. 1954. *Gods Graves & Scholars: The Story of Archaeology*. (London: Readers Union).
- Dawson, W. R. and Uphill, E. P. 1995. *Who Was Who in Egyptology*, 3rd ed., rev. M. Bierbrier. (London: Egypt Exploration Society).
- Dewachter, M. 1990. *Champollion, un scribe pour l'Égypte*. (Paris: Découvertes Gallimard).
- Dhombres, N. and Dhombres, J. 1989. *Naissance d'un nouveau pouvoir, sciences et savants en France (1793-1824)*. (Paris: Éditions Payot).
- Diodorus Siculus. *Library of History: Loeb Classical Library*, tran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33-1967.
- Drower, M. 1985. *Flinders Petrie: A Life in Archaeology*. (London: Victor Gollancz).
- El-Daly, O. 2005. *Egyptology: The Missing Millennium: Ancient Egypt in Medieval Arabic Writings*. (London: University College London Press).
- Fagan, B. M. 1975. *The Rape of the Nile, Tomb Robbers, Tourists, and Archaeologists in Egypt*.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 Gange, David. 2013. *Dialogues with the Dead: Egyptology in British Culture and Religion*.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Georg, Maximilian. "The Living Surrounding the Dead: European Archaeologists in Egypt and their relations with the local inhabitants, 1798-1898." In *Towards a History of Egyptology*, edited by Hana Navráilova, Thomas L Gertzen, Aidan Dodson and Andrew Bednarski. (Münster: Zaphon), pp. 91-126.
- Greener, L. 1967. *The Discovery of Egypt*. (New York: Dorset).
- Haikal, Fayza. "Egyptology in Egypt: The Founding Institutions." In *Towards a History of Egyptology*. Edited by Hana Navráilova, Thomas L Gertzen, Aidan Dodson and Andrew Bednarski. (Münster: Zaphon), pp. 73-90.
- James, T. G. H. (ed.) 1982. *Excavating in Egypt, the Egypt Exploration Society 1882-1982*. (London: British Museum Publications Ltd).
- Laissus, Y. 1973. "Description de l'Égypte, bilanscientifique d'une expédition militaire." In *L'art du livre à l'Imprimerie Nationale*, edited by G. Bonnin. (Paris: Imprimerie Nationale), pp. 191-205.
- Lamy, F. and Bruwier, M.-C. 2005. *L'Égyptologie avant Champollion*. (Louvain-la-Neuve: Versant Sud.).
- Laurens, H. 1987. *Les origines intellectuelles del'expédition d'Égypte: l'orientalisme islamisant en France (1698-1798)*. (Istanbul: Isis Yayimcilik Ltd.).

- Laurens, H. 1990. *Le royaume impossible, la France et l'agenèse du monde arabe*. (Paris: Armand Colin Editeur).
- Laurens, H. 1999. "Introduction, les Lumières et l'Égypte." In *L'expédition d'Égypte, une entreprise des Lumières 1798-1801*, edited P. Bret. (Paris: Technique et Documentation), pp. 1-6.
- Leclant, J. 1999. "L'égyptologie avant l'expédition d'Égypte." In *L'expédition d'Égypte, une entreprise des Lumières 1798-1801*, edited by P. Bret. (Paris: Technique et Documentation), pp. 121-128.
- Lloyd, A. B. 1975-1988. *Herodotus Book II: A Commentary*, 3 vols. (Leiden: Brill).
- Lustig, J. ed. 1997. *Anthropology and Egyptology*. (Sheffield, UK: Sheffield University Press).
- O'Connor, D. 1990. "Egyptology & archaeology: an African perspective" in *A History of African Archaeology*, edited by P. Robertshaw. London: James Currey, pp. 236-251.
- Pococke, R. 1743-1745. *A Description of the East and Some Other Countries*. (London: W. Bowyer).
- Quirke, S. 2010. *Hidden Hands: Egyptian Workforces in Petrie Excavation Archives, 1880-1924*. (London: Duckworth).
- Ray, J. D. 2007. *The Rosetta Stone and the Rebirth of Ancient Egyp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Redford, D. B. 1979. "The Historiography of Ancient Egypt." In *Egyptology and the Social Sciences*, edited by K. Weeks, pp. 3-20.
- Reid, Donald M. 2002. *Whose Pharaohs?: Archaeology, Museums, and Egyptian National Identity from Napoleon to World War I*.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chneider, Thomas. 2013. *Egyptology from the First World to the Third Reich: Ideology, Scholarship, and Individual Biographies*. (Leiden: Brill).
- Thompson, J. 1992. *Sir Gardner Wilkinson and His Circle*. (Texas: University of Texas Press).
- Trigger, B. G. 1989. *A History of Archaeological Though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Ucko, P. (ed.) 2003. *Encounters with Ancient Egypt*. (London: University College London, Institute of Archaeology).
- Waddell, W. G. 1964. *Manetho*.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Wenke, R. J. "Anthropology, Egyptology and the Concept of Cultural Change." In *Anthropology and Egyptology: A Developing Dialogue*, edited by Judith Lustig, pp. 212-33.
- Wilkinson, Richard H. 2008. *Egyptology Today*.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orthington, J. D. 1971. *British Egyptology: 1549-1906*. (Newton: Abbott).

1-3) 시리아/팔레스타인 고고학 역사와 전망: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논쟁점들

- 강후구 2017, 「이스라엘 핀켈슈타인(Israel Finkelstein)의 '저연대 (Low Chronology)' 주장에 대한 고고학적 고찰」 『구약논단』 23/3: 172-209.
- 강후구 2014, 『성서와 고고학: 이스라엘 정착부터 시작 침공까지』 (서울장신대학교출판부).
- 레이니, 앤손 F./나틀리, R. 스티븐 2010, 강성열 옮김, 『성경 역사 지리학 고고학 아틀라스』 (서울: 이레서원).
- 클라인, 에릭. H. 2013. 류광현 옮김, 『성서고고학』 (서울: CLC).
- Ahituv, Shmuel 2008, *Echoes From the Past: Hebrew and Cognate Inscriptions from the Biblical Period* (Jerusalem: A Carta Handbook).
- Amiran, Ruth 1969, *The Ancient Pottery of the Holy Land: From the Beginning in the Neolithic Period to the End of the Iron Age* (Jerusalem: Massada Press).
- Ben-Tor, Amnon 1992, *The Archaeology of Ancient Israel*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Ben-Tor, Daphna 2007, *Scarabs, Chronology and Interconnections : Egypt and Palestine in the*

- Second Intermediate Period* (Fribourg: Academic Press).
- Bar-Yosef, Ofer/Garfinkel, Yosef 2008, *The Prehistory of Israel : Human Cultures before Writing* (Jerusalem: Ariel). (Hebrew)
- Borowski, Oded 2003, *Daily Life in Biblical Times*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 Dever, William G. 2001, *What Did the Biblical Writers Know, and When Did They Know It?: What Archaeology Can Tell Us About the Reality of Ancient Israel* (Grand Rapids, MI: Eerdmans Publishing Company).
- Dever, William G./Gitin, Seymour 2003, (ed.) *Symbiosis, Symbolism, and the Power of the Past: Canaan, Ancient Israel, and Their Neighbors from the Late Bronze Age through Roman Palaestina* (Winona Lake, IN: Eisenbrauns).
- Dothan, Trude 1982, *The Philistines and Their Material Culture*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 Dothan, Trude 1992, *People of the Sea : the Search for the Philistines* (New York: Macmillan).
- Faust, Avraham 2006, *Israel's Ethnogenesis : Settlement, Interaction, Expansion and Resistance* (London: Equinox).
- Faust, Avraham 2012, *The archaeology of Israelite society in Iron Age II* (Winona Lake, IN: Eisenbrauns).
- Finkelstein, Israel 1995, "The Date of the Settlement of the Philistines in Canaan," *Tel Aviv* 22: 213-239.
- Finkelstein, Israel 1996, "The Archaeology of the United Monarchy: an Alternative View," *Levant* 28: 177-187.
- Finkelstein, Israel/Mazar, Amihai 2007, *The Quest for the Historical Israel : Debating Archaeology and the History of Early Israel* (Leiden: Brill).
- Garfinkel, Yosef 2015, *Debating Khirbet Qeiyafa : A Fortified City in Judah From the Time of King David*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 Garfinkel, Yosef/Ben-Shlomo, David 2009, *Sha'ar Hagolan 2: The Rise of Urban Concepts in the Ancient Near East* (Jerusalem: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 Gitin, Seymour 2015, (ed.) *The Ancient Pottery of Israel and Its Neighbors from the Iron Age*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 Gitin, Seymour/Mazar, Amihai/Stern, Ephraim 1998, (eds.) *Mediterranean Peoples in Transition. Thirteenth to Early Tenth Centuries BCE: In Honor of Professor Trude Dothan*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 Herzog, Ze'ev 1997, *Archaeology of the City : Urban Planning in Ancient Israel and Its Social Implications* (Tel Aviv: Tel Aviv University, Institute of Archaeology).
- Kempinski, Aharon 1992, *The Architecture of Ancient Israel: From the Prehistoric to the Persian Period*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 Killebrew Ann. E./Lehmann, Gunnar 2013, (ed.) *The Philistines and Other "Sea Peoples" in Text and Archaeology*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 Lemche, Niels Peter 2015, *Ancient Israel : A New History of Israel* (London : Bloomsbury T&T Clark).
- Levy, Thomas E. 1995 (ed.), *The Archaeology of the Society in the Holy Land* (London and Washington: Leicester University Press).
- Levy, Thomas E./ Higham, T. 2005, (eds.) *The Bible and Radiocarbon Dating: Archaeology, Text and Science* (London: Equinox).
- Mazar, Amihai 1990, *Archaeology of the Land of the Bible: 10,000-586 B.C.E.* (New York: Doubleday).
- Mazar, Amihai/Mathias, Ginny 2001, *Studies in the archaeology of the Iron Age in Israel and Jordan* (Sheffield, England : Sheffield Academic Press).
- Mazar, Amihai/Panitz-Cohen, Nava 2020, *Tel Rehov, A Bronze and Iron Age City in the Beth-Shean Valley*, Volumes I-III. (Jerusalem: The Institute of Archaeology, The

-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 Moorey, P. R. Stuart 1992, *A Century of Biblical Archaeolog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 Sass, Benjamin 1988, *The Genesis of the Alphabet and its Development in the Second Millennium B.C.* (Ägypten und Altes Testament 13; Wiesbaden).
- Stern, Ephraim 1993, (ed.) *The New Encyclopedia of the Archaeological Excavations in the Holy Land*, Vols. 1-4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 Stern, Ephraim 2001, *Archaeology of the Land of Bible Vol. 2: The Assyrian, Babylonian, and Persian Periods (732-332 B.C.E.)* (New York: Doubleday).
- Stern, Ephraim 2008, (ed.) *The New Encyclopedia of the Archaeological Excavations in the Holy Land, Supplementary*. Vol. 5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 Thompson, Thomas 2016, *The Historicity of the Patriarchal Narratives : The Quest for the Historical Abraham* (Berlin : De Gruyter).
- Ussishkin, David 1982, *The Conquest of Lachish by Sennacherib* (Tel Aviv: Tel Aviv University, Institute of Archaeology).
- Ussishkin, David 2004, (ed.) *The Renewed Archaeological Excavations at Lachish (1973-1994)* (Tel Aviv: Emery and Claire Yass Publications in Archaeology).

1-4) ‘인더스 문명’의 정체와 역사 전쟁

- 포이어스타인, 게오르그, 각, 수바쉬, 프롤리, 데이비드 2000, 정광식 역, 『최초의 문명은 고대 인도에서 시작되었다』 (사군자).
- Agrawal, D.P. 1984, *Archaeology of India* (New Delhi: Selectbook Service Syndicate).
- Allchin & Allchin 1983, *The Rise of Civilization in India and Pakistan*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ngard-Levin, G.M. 1980, *The Origin of Aryans* (Arnold-Heinemann: New Delhi).
- Childe, Gordon 1952, *New Light on the Most Ancient East*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Dikshit, N.K. 1977, “Distribution and relationship of protohistoric sites along old river channels of the Ghaggar system”. D.P.Agrawal & B.M.Pande (ed.), *Ecology & Archaeology of Western India* (New Delhi: Concept Publisher).
- Erdosy, George 1995, *The Indo-Aryans of Ancient South Asia* (Walter de Gruyter: Berlin & New York).
- Fairservis, W.A. 1979, “The Origin, Character and Decline of an Early Civilization,” G.L.Posseh (ed.), *Ancient Cities of the Indus* (Vikas Publishing House, New Delhi).
- Frawley, David 1993, *Gods, Sages and Kings. Vedic Secrets of Ancient Civilization* (Delhi: Motilal Banarsidass).
- Golwalkar, M.S. 1947, *We or Our Nationhood Defined* (Nagpur: Kale).
- Graham, Bruce, D. 1993, *Hindu Nationalism and Indian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upta, S.P. 1995, “The Indus-Sarasvati Civilization: Some New Developments,” Gupta, S.P. (ed.) *The ‘Lost’ Sarasvati and the Indus Civilization* (Kusumanjali Publishers: Jodhpur).
- Lal, B.B. 1997, *The Earliest Civilization of South Asia* (Aryan Books International: New Delhi).
- 1998, *India 1947-1997: New Light on the Indus Civilization* (New Delhi: Aryan Books International).
- Leopold, J 1970. “The Aryan theory of race in India 1870-1920. Nationalist and Internationalist Visions,” *Indian Economic and Social History Review*, VII. 2.
- Mughal, M.R. 1970, *The Early Harappan Period in the Greater Indus Valley and Northern Baluchistan*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Müller, Max 1961, *India. What Can It Teach Us?* (Delhi: Munshi Ram Manohar Lal, 인도판 재판; 초판 1883).

- Pal, Yash, Sahai, Baldev, Sood, R.K., & Agrawal, D.P. 1995, "Remote Sensing of the Lost Saraswati," S.P.Gupta (ed.), *The 'Lost' Sarasvati and the Indus Civilization* (Kusumanjali Publishers: Jodhpur).
- Parpola, Asko 1998, 'The coming of Aryans to Iran and India and the cultural and ethnic of the dāsas', *Studia Orientalia* vol. 64.
- Piggott, S. 1950, *Prehistoric India* (Harmondsworth: Penguin Books).
- Poliakov, L. 1974, *The Aryan Myth* (New York: Basic Books).
- Possehl, G.L. 1979 (ed.), *Ancient Cities of the Indus* (Vikas Publishing House, New Delhi).
- Raikes, R.L., & Dales, G.F. 1977, "The Mohenjodaro floods reconsidered." *Journal of Palaeontological Society of India*, vol. 20.
- Rajaram, N.S. 1995, *Secularism. The New Mask of Fundamentalism. Religious Subversion of Secular Affairs* (New Delhi: Voice of India).
- & Frawley, David 2001, *Vedic Aryans and the Origins of Civilization. A Literary and Scientific Perspective*, (Delhi: Voice of India, 제3 증보판).
- Sahni, M.R. 1956, "Biogeological evidence bearing on the decline of the Indus civilization," *Journal of Palaeontological Society of India*, vol. 1. no. 1.
- Savarkar, V.D. 1938, *Hindutva* (New Delhi: The Central Hindu Yuvak Sabha).
- Sen, K.S. 1901-1904, *Keshub Chunder Sen's Lectures in India* (London & New York: Cassell).
- Sethna, K.D. 1980, *The Problem of Aryan Origin from an Indian Perspective* (S.&S. Publishers: Calcutta).
- Sharma, R.S. 1993, "The Aryan problem and the horse," *Social Scientist*, vol. 21. Nos. 7-8.
- 1999, *Advent of the Aryans in India* (Manohar: New Delhi).
- Talageri, Shrikant G. 1995, *Aryan Invasion Theory and Indian Nationalism* (Voice of India: New Delhi).
- Thapar, Romila 1996, 'The theory of Aryan race and India: history and politics', *Social Scientist*, vol. 24. no. 1-3.
- 1993, "Imagined Religious Communities? Ancient History and the Modern Search for a Hindu Identity," *Interpreting Early India*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 Trautmann, Thomas R. 1997, *Aryans and British India* (Vistar Publications: New Delhi).
- Wheeler, Sir Mortimer 1959, *India and Pakistan*, (London: Thames and Hudson).

1-5) 방대한 출토 자료의 이면: 중국 고대문명 연구의 지역주의와 信古

- 고야쓰 노부쿠니 2007, 김석근 옮김, 『일본근대사상비판: 국가, 전쟁, 지식인』 (역사비평사).
- 裘錫圭 2004, 「中國古典學重建中應該注意的問題」, 『中國出土文獻十講』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 顧頡剛 1982, 『古史辨』第一冊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 김병준 2001, 「고대중국의 서방전래문물과 곤륜산 신화」, 서울대학교 동양사학연구실 편, 『古代中國의 理解』 5.
- 김병준 2005, 「中國古代 “長江文明”의 재검토」, 『중국학보』 51.
- 김병준 등 2008, 『중국의 ‘지역문명 만들기’와 역사, 고고학 자료 이용 사례 분석』 (동북아역사재단).
- 김정열 2018, 「고고문화와 민족 - 중국학계의 시각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동북아역사논총』 62.
- 김정열 2017, 「홍산문화, 현상과 쟁점」, 『한국상고사학보』 96.
- 김정열 2014, 「홍산문화론- 牛河梁 유적과 중국 초기 문명론을 중심으로 -」, 『한국고대사연구』 76.
- 內藤湖南 1969, 「大阪の町人學者富永仲基」, 『內藤湖南全集』 第九卷 (東京: 筑摩書房).
- 로타 본 팔켄하우젠 2011, 심재훈 옮김, 『고고학 증거로 본 공자시대 중국사회』 (세창출판사).
- 류리·천상찬 2019, 『중국고고학: 구석기시대 후기부터 청동기시대 전기까지』 (사회평론아카데미).
- 리첸진 2019, 이유표 옮김, 『의고시대를 걸어 나오며』 (글항아리).
- 리평 2017, 이청규 옮김, 『중국고대사』 (사회평론아카데미).
- 文物編輯委員會 編 1979, 『文物考古工作三十年』 (北京: 文物出版社).

- 文物編輯委員會 編 1990, 『文物考古工作十年: 1979-1989』(北京: 文物出版社).
- 白鳥庫吉 1970, 「支那古傳説の研究」, 『白鳥庫吉全集』 8.
- 本社 編 1999, 『新中國考古五十年』(北京: 文物出版社).
- 邵東方 1998, 『崔述與中國國學術史研究』(北京: 人民出版社).
- 蘇秉琦 2016, 박재복 옮김, 『중국 문명의 기원을 새롭게 탐구한 區系類型論』(도서출판 考古)
- 孫慶偉 2018, 『鼎宅禹迹: 夏代信史的考古學重建』(三聯書店).
- 송호정 등 2008, 『중국 동북지역 고고학 연구현황과 문제점』(동북아역사재단).
- 심재훈 2003, 「고대중국 이해의 상반된 시각: 의고와 신고 논쟁」, 『역사비평』 65.
- 심재훈 2007, 「하상주단대공정과 信古 경향 고대사 서술」, 『韓國史學史學報』 16.
- 심재훈 2011, 「주대를 읽는 다른 방법: 자료와 체계의 양면성」, 『중국고중세사연구』 26.
- 심재훈 2010, 「민족주의적 동아시아 고대사 서술과 그 자료 새롭게 보기」, 『역사학보』 208.
- 심재훈 2019, 「전설과 역사 사이: 山西省의 堯舜禹」, 『역사학보』 241.
- 심재훈 2020, 「二里頭 중국 고대국가 기원론의 딜레마」, 『역사학보』 245.
- 심재훈 2021, 「중국에 나타난 그리핀과 문명의 동진」, 『동양학』 83.
- 安志敏 1987, 「試論文明的起源」, 『考古』 1987-5.
- 楊鵬·羅福惠 2010, 「古史辨運動與日本疑古史的關聯」, 『學術爭鳴』 2010-3.
- 李零 1998, 「考古發現與神話傳說」, 『李零自選集』(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 李零 2014, 「禹蹟考: 《禹貢》講授提綱」, 『中國文化』 39.
- 李學勤 1984, 『東周與秦代文明』(北京: 文物出版社).
- 朱鳳瀚 2019a, 「夏文化考古學探索六十年的啓示」, 『歷史研究』 2019-1.
- 朱鳳瀚 2019b, 「漢代以前的北方與歐亞草原」, “東北亞青銅器比較研究”國際學術研討會, 日本 岩手大學, 12월 14-16일.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2003, 『中國考古學: 夏商卷』(北京: 中國社會科學文獻出版社).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2004, 『中國考古學: 兩周卷』(北京: 中國社會科學文獻出版社).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2010, 『中國考古學: 新石器時代卷』(北京: 中國社會科學文獻出版社).
- Barreett, T.H. 1993, "Tominaga our Contemporary,"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Third Series 3 (2).
- Chang, K.C. 1986, *The Archaeology of Ancient China*, 4th edi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Creel, Herrlee G. 1937, *The Birth of China: A Survey of the Formative Period of Chinese Civilization* (New York: Frederick Ungar).
- Falkenhausen, Lothar von. 1993, "On the Historical Orientation of chinese Archaeology," *Antiquity* 67.
- Falkenhausen, Lothar von. 1995 "The Regionalist Paradigm in Chinese Archaeology," In *Nationalism, Politics and the Practice of Archaeology*, Philip Kohl and Clare Fawcett ed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alkenhausen, Lothar von. 2001, "The External Connections of Sanxingdui," *Journal of East Asian Archaeology* 5, 1-4.
- Falkenhausen, Lothar von. 2014, "Review of *Bureaucracy and the State in Early China: Governing the Western Zhou*," 『浙江大學藝術與考古研究』 第一輯.
- Fiskesjö, Magnus and Chen Xingcan 2004, *China before China: John Gunnar Anderson, Ding Wenjiang, and the Discovery of China's Prehistory*, Museum of Far Eastern Antiquities Monograph 15 (Stockholm: Ostasiatiska museet).
- Fitzgerald-Huber, Lousia G. 1995, "Qijia and Erlitou: The Question of Contacts with Distant Cultures," *Early China* 20.
- Fogel, Joshua A. 1995, *The Cultural Dimension of Sino-Japanese Relations: Essays on the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ies* (New York: M.E. Sharpe).
- Franke, Herbert 1992, "In Search of China: Some General Remarks on the History of European Sinology," in *Europe Studies China: Papers from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History of European Sinology* (London: Han-Shan Tnag Books).

- Gideon, Shelach-Lavi 2015, *The Archaeology of Early China: From Prehistory to the Han Dynas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n, Tze-ki 1996, "Ethnic and Cultural Pluralism: Gu Jiegang's Vision of a New China in His Studies of Ancient History," *Modern China* 22.3.
- Li Feng 2017, "Method, Logic, and the Debate about Western Zhou Government: A Reply to Lothar von Falkenhausen," *Front History China* 12.3.
- Li Min 2018, *Social Memory and State Formation in Early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n Yun 1986, "A Re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Bronzes of the Shang Culture and of the Northern Zone," in *Studies of Shang Archaeology: Selected Papers from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hang Civilization*, ed. by K. C. Chang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Liu Li 2004, *The Chinese Neolithic: Trajectories to Early Stat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u Li 2009, "Academic freedom, political correctness, and early civilisation in Chinese archaeology: the debate on Xia-Erlitou relations," *Antiquity* 83.
- Loewe, Michael and Shaughnessy, Edward L. ed. 1999, *The Cambridge History of Ancient China: From the Origins of Civilization to 221 B.C.*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ei, Jianjun 2003, "Qijia and Seima-Turbino: The Question of Early Contacts between Northwestern China and the Eurasian Steppe," *Bulletin of the Museum of Far Eastern Antiquities* 75.
- Rawson, Jessica 2013, "Ordering the Exotic: Ritual Practices in the Late Western and Early Eastern Zhou," *Artibus Asiae* 73.1.
- Schaberg, David 2004, "Texts and Artifacts: A Review of *The Cambridge History of Ancient China*," *Monumenta Serica* 49.
- Schneider, Laurence A. 1971, *Ku Chieh-kang and China's New History: Nationalism and the Quest for Alternative Tradition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haughnessy, Edward L. 2006, *Rewriting Early Chinese Text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2006).

2-1) 문명의 조건: '우룩 팽창(Uruk expansion)' 논쟁을 중심으로

- 노먼 요피, 2020, 「고대 도시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 『東洋學』 79.
- 마르크 반 드 미에룹, 김구원(옮김), 2010, 『고대 근동의 역사』, CLC.
- 박성진, 2020, 「라피스트라줄리로드: 실크로드 이전의 실크로드」, 『고대 문명의 교역과 교류』, 제50회 동양학연구원 국제학술회의,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 아키라 츠네키, 2020, 「농경사회에서 도시문명으로: 고대 서아시아의 사례」, 『東洋學』 79.
- 유성환, 2020, 「조형예술을 통해 본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 간 교류」, 『고대 문명의 교역과 교류』, 제50회 동양학연구원 국제학술회의,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 Adams, Robert (with H. J. Nissen), 1972, *The Uruk Countryside: The Natural Setting of Urban Societi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Algaze, Guillermo, 2008, *Ancient Mesopotamia at the dawn of civilization: The evolution of an urban landscap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Amiet, Pierre, 1986, *L'âge des échanges inter-iraniens : 3500-1700 avant J.-C.*, (Paris: Éditions de la Réunion des musées nationaux).
- Aubet, Maria, 2013, *Commerce and Colonization in the Ancient Near Eas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urenche, Olivier, Kozłowski, Stefan, 1999, *La naissance du Néolithique au Proche Orient*,

- (Paris: Éditions Errance).
- Bottéro, Jean, 1998, *La plus vieille religion: en Mésopotamie*, (Paris: Gallimard).
- Butterlin, Pascal, 2003, *Les temps proto-urbains de Mésopotamie: Contacts et acculturation à l'époque d'Uruk au Moyen-Orient*, (Paris: CNRS Éditions).
- Carter, Robert, Graham Philp, 2010, "Deconstructing the Ubaid," In: *Beyond the Ubaid: Transformation and intergration in the Late Prehistoric societies of the Middle East*, Robert Carter and Graham Philip (eds.), (Chicago: The Oriental Institute of the University of Chicago), SAOC 63.
- Cauvin, Jacques. 1994, *Naissance des divinités, naissance de l'agriculture: La révolution des symboles au Néolithique*, (Paris: CNRS Éditions).
- Durand, Jean-Marie, Jacquet, Antoine (eds.), 2009, *Centre et périphérie: Approches nouvelles des orientalistes*, (Paris: Librairie d'Amérique et d'Orient Adrien Maisonneuve).
- Emberling, Geoff, 2015, "Mesopotamian cities and urban process, 3500-1600BCE," In: *Early citi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4000BCE-1200CE*, Norman Yoffee,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angipane, Marcella, 2001, "Centralization processes in Greater Mesopotamia: Uruk "Expansion" as the Climax of Systemic interactions among areas of the Greater Mesopotamian region," In: *Uruk Mesopotamia & Its Neighbors: Cross-cultural interactions in the Era of State formation*, Mitchell Rothman (ed.), (Santa Fe: School of American Research Press).
- Frangipane, Marcella, 2002, "'Non-Uruk' developments and Uruk-linked features on the Northern borders of Greater Mesopotamia," In: *Artefacts of Complexity: Tracking the Uruk in the Near East*, J. N. Postgate (ed.), (London: British School of Archaeology in Iraq).
- Gurdil, Bekir, 2010, Exploring social organizational aspects of the Ubaid communities: A case study of değmentepe in Eastern Turkey, In: *Beyond the Ubaid: Transformation and integration in the Late Prehistoric societies of the Middle East*, Robert Carter and Graham Philip (eds.), (Chicago: The Oriental Institute of the University of Chicago), SAOC 63.
- Huot, Jean-Louis, 2004, 2019, *Une archéologie des peuples du Proche-Orient*, I, II, (Paris: Éditions Errance).
- Karsgaard, Philp, 2010, "The Halaf-Ubaid Transition: A transformation without a center?," In: *Beyond the Ubaid: Transformation and integration in the Late Prehistoric societies of the Middle East*, Robert Carter and Graham Philip (eds.), (Chicago: The Oriental Institute of the University of Chicago), SAOC 63.
- Lamberg-Karlovsky, C. C., 2015, "Labor, social formation and the Neolithic Revolution," In: Piotr Steinkeller, Michael Hudson, (eds.), *Labor in the Ancient World*, Dresde: ISLET.
- Liverani, Mario, Bahrani, Zainab and De Mieroop, Marc Van (trans.), 2006, *Uruk: The First City (Uruk: La prima città)*, (Sheffield: Equinox).
- Matthews, Roger, 2003, *The archaeology of Mesopotamia: Theories and approaches*, (London: Routledge).
- McAnany, Patricia, Yoffee, Norman, 2009, *Questioning Collapse: Human Resilience, Ecological Vulnerability, and the Aftermath of Empi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idant-Reynes, Béatrix, 2003, *Aux origines de l'Égypte: Du Néolithique à l'émergence de l'État*, (Paris: Fayard).
- Mitchell, Peter, 2018, *The donkey in Human history: An Archaeological perspectiv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oorey, Roger, 1999, *Ancient Mesopotamian Materials and Industries: The Archaeological Evidence*, (Indiana: Eisenbrauns).
- Nissen, Hans, 2001, "Cultural and Political Networks in the Ancient Near East during the

- Fourth and Third Millennia B.C.," In: *Uruk Mesopotamia & Its Neighbors: Cross-cultural interactions in the Era of State formation*, Mitchell Rothman (ed.), (Santa Fe: School of American Research Press).
- Nissen, Hans J., 2002, "Uruk: key site of the period and key site of the problem," In: *Artefacts of Complexity: Tracking the Uruk in the Near East*, J. N. Postgate (ed.), (London: British School of Archaeology in Iraq).
- Oates, Joan, McMahon, Augusta, Karsgaard, Philip, Quntar, Salam Al, Ur, Jason, 2007, "Early Mesopotamian urbanism: a new view from the north," *Antiquity* 81: 313.
- Philip, Graham, 2002, "Contacts between the 'Uruk' world and the Levant during the Fourth Millennium BC: evidence and interpretation," In: *Artefacts of Complexity: Tracking the Uruk in the Near East*, J. N. Postgate (ed.), (London: British School of Archaeology in Iraq).
- Pollock, Susan, 2001, "The Uruk period in Southern Mesopotamia," In: *Uruk Mesopotamia & Its Neighbors: Cross-cultural interactions in the Era of State formation*, Mitchell Rothman (ed.), (Santa Fe: School of American Research Press).
- Postgate, Nicolas, 2003, "Learning the Lessons from the Future: Trade in Prehistory-Through a historian's lens," *Bibliotheca Orientalis* 60: 1-2.
- Schwartz, Glenn, 2001, "Syria and the Uruk Expansion," In: *Uruk Mesopotamia & Its Neighbors: Cross-cultural interactions in the Era of State formation*, Mitchell Rothman (ed.), (Santa Fe: School of American Research Press).
- Stein, Gil, 2002, "The Uruk expansion in Anatolia: a Mesopotamian colony and its indigenous host community at Hacmebi, Turkey," In: *Artefacts of Complexity: Tracking the Uruk in the Near East*, J. N. Postgate (ed.), (London: British School of Archaeology in Iraq).
- Wright, Henry, 2001, "Cultural action in the Uruk World," In: *Uruk Mesopotamia & Its Neighbors: Cross-cultural interactions in the Era of State formation*, Mitchell Rothman (ed.), (Santa Fe: School of American Research Press).

2-2) 유일신교의 역사적 기원

- Ahn, Gregor. 1993. "'Monotheismus'-'Polytheismus': Grenzen und Möglichkeiten einer Klassifikation von Gottesvorstellungen." In *Mesopotamica - Ugaritica - Biblica. Festschrift of Kurt Bergerhof*, edited by Manfred Dietrich and Oswald Loretz. Kevelaer: pp. 1-24.
- Albertz, Rainer. 1994. *A History of Israelite Religion in the Old Testament Period*. Vol. 1.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 Albright, William Foxwell. 1990. *Yahweh and the Gods of Canaan*. Winona Lake, IN: Eisenbrauns.
- Assmann, Jan. 2008. *Of God and Gods: Egypt, Israel, and the Rise of Monotheism*. Madison, WI: Wisconsin University Press.
- . 2009. *The Price of Monotheism*.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Barr, James. 1957-58. "The Problem of Israelite Monotheism," *Glasgow University Oriental Society* 17: pp. 52-62.
- Becking, Bob., Dijkstra, Meindert., Korpel, Marjo., and Vreizen, Karel. 2002. *Only One God?: Monotheism in Ancient Israel and the Veneration of the Goddess Asherah*. Sheffield, UK: Sheffield Academic Press.
- Cataldo, Jeremiah. 2013. *Breaking Monotheism: Yehud and the Material Formation of Monotheistic Identity*. Sheffield, UK: Sheffield University Press.
- Cohen, Hermann. 1995 *Religion of Reason out of the Sources of Judaism*. Simon Kaplan, trans. Atlanta: Scholars Press.

- Cross, F. M. 1997.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Essays in the History of the Religion of Israel*.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Dever, William G. 2008. *Did God Have a Wife?: Archaeology and Folk Religion in Ancient Israel*. Grand Rapids, MI: Eerdmans.
- 2017. *Beyond the Texts: An Archaeological Portrait of Ancient Israel and Judah*. Atlanta, GA: SBL Press.
- Faur, José. 1978. "The Biblical Idea of Idolatry," *Jewish Quarterly Review* 69: pp. 1-15.
- Fox, Nili. 2006. "Concepts of God in Israel and the Question of Monotheism," in *Text, Artifact, and Image: Revealing Ancient Israelite Religion*, edited by Gary Beckman and Theodore Lewis. Providence, RI: Brown Judaic Studies: pp. 326-345.
- Freud, Sigmund. 1955. *Moses and Monotheism*. New York City, NY: Vintage.
- Frymer-Kensky. 1992. Tikva. *In the Wake of the Goddesses: Women, Culture, and the Biblical Transformation of Pagan Myth*. New York: Free Press.
- Haag, Ernst. 1985. *Gott, der Einzige: Zur Entstehung des Monotheismus in Israel*. Freiburg: Herder.
- Hoffmeier, James. 2015. *Akhenaten and the Origins of Monothe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Idowu, E. Bolaji. 1962. *Olódùmaré: God in Yoruba Belief*. London: Longmans.
- Kaufmann, Yehezkel. 1960. *The Religion of Israel: From Its Beginnings to the Babylonian Exile*. Moshe Greenberg, trans. and abr.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eel, Othmar. 2007. *Die Geschichte Jerusalems und die Entstehung des Monotheismus*. 2 vol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7.
- Knohl, Israel. 2007. *Biblical Beliefs: The Borders of Biblical Revolution* [in Hebrew]. Jerusalem: Magnes Press.
- Kugel, James. 2017. *The Great Shift: Encountering God in Biblical Times*. New York City, NY: HMC.
- Lamaire, Andre. 2007. *Birth of Monotheism: The Rise and Disappearance of Yahwism*. Biblical Archaeological Society.
- Levin, Baruch. "Global Monotheism: The Contribution of the Israelite Prophets," in *Melammu: The Ancient World in an Age of Globalization*, edited by Markham J. Geller. Berlin, Germany: Epubli, 2014: pp. 29-47.
- Lewis, Theodore. 2020. *The Origin and Character of God: Ancient Israelite Religion through the Lens of Divinity*.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Machinist, Peter. 2005. "Once More: Monotheism in Biblical Israel," *JISMOR* 1 special issue: pp. 26-39.
- McCarter, Kyle P. 2004. "The Origins of Israelite Religion," in *The Rise of Ancient Israel*, edited by Hershel Shanks. Biblical Archaeology Society.
- Mettinger, Tryggve. 1995. *No Graen Image? Israelite Aniconism in Its Ancient Near Eastern Context*. Stockholm: Almqvist och Wiksell.
- Miller, Patrick D. 2000. *The Religion of Ancient Israel*.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 Oeming, Manfred and Schmidt, Konrad. 2003. *Der eine Gott und die Götter: Polytheismus und Monotheismus im Antiken Israel*. Zurich: Theologischer Verlag Zürich.
- Petersen, 1998. "Israel and Monotheism," in *Canon, Theology, and Old Testament Interpretation: Essays in Honor of Brevard S. Childs*, edited by Gene Tucker, David Petersen and Robert Wilso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 Pongratz-Lesten, Beate. 2011. *Reconsidering the Concept of Revolutionary Monotheism*. Winona Lake, IN: Eisenbrauns.
- Porter, Barbara N. 2000. *One God or Many? Conceptions of Divinity in the Ancient World*. Chebeague Island, Maine: Casco Bay Assyriological Institute

- Prop, 1999. "Monotheism and 'Moses': The Problem of Early Israelite Religion," *Ugarit-Forschungen* 31: pp. 537-75.
- Römer, Thomas. 2015. *The Invention of Go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chenker, Adrian. 1997. "Le monothéisme israélite: Un dieu qui transcende le monde et les dieux," *Biblica* 78: pp. 436-48.
- Smith, Mark. 2002. *The Early History of God: Yahweh and the Other Deities in Ancient Israel*. Grand Rapids, MI: Eerdmans.
- . 2003. *The Origins of Biblical Monotheism: Israel's Polytheistic Background and the Ugaritic Text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ommer, Benjamin D. 2011. *The Bodies of God and the World of Ancient Israel*.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an der Toorn, Karel. 1997. *The Image and the Book: Iconic Cults, Aniconism, and the Rise of Book Religion in Israel and the Ancient Near East*. Leuven: Peeters.
- Yairah, Amit. 2006. *Essays on Ancient Israel in Its Near Eastern Context*. Winona Lake, IN: Eisenbrauns.
- Zevit, Ziony. 2002. *The Religions of Ancient Israel: A Synthesis of Parallactic Approaches*. Camden, London: Bloomsbury Academic.

2-3) 인더스 대평원 최초의 도시: 왜 그곳에서 문순아시아 최초의 도시가 성장했나?

- Cunningham, A., 1871, *Four Reports made during the years 1862-63-64-65, Archaeological Survey Report I*, A.S.I: New Delhi
- Stein, A., 1929, *On Alexander's Track to the Indus*, MacMillan and Co: London
- Marshall, J. M., 1924, First Light on a Long-forgotten Civilization: New Discoveries of an Unknown Prehistoric Past of India, *The Illustrated London News*(20th, Sep), pp 428-32 and 548.
- Marshall, J. M., (ed.), 1931, *Mohenjo-dara and the Indus Civilization*, Arthur Probsthain: London.
- Wheeler, R. E. M., 1966, *Civilizations of the Indus Valley and Beyond*, Thames and Hudson: London.
- Lahiri, N., 2005, *Finding Forgotten Cities: How the Indus Civilization Was Discovered*, Permanent Black: New Delhi.
- Allchin, B., and F. R. Allchin, 1982, *The Rise of Civilization in India and Pakista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llchin, B., and F. R. Allchin, 1997, *Origins of a Civilization: The Prehistory and Early Archaeology of South Asia*, Viking: New Delhi.
- Possehl, G. L., 1999, *Indus Age: The Beginnings*, Oxford: New Delhi.
- Possehl, G. L., 2002, *The Indus Civilization: A Contemporary Perspective*, AltaMira: California.
- Kenoyer, J. M., 1998, *Ancient Cities of the Indus Valley Civiliz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Karachi.
- McIntosh, J. R., 2002, *Peaceful Realm: The Rise and Fall of the Indus Civilization*, Westview Press: Colorado.
- Agrawal, D. P., 2007, *The Indus Civilization: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Aryan Book International: New Delhi.
- Shaffer, J. G., and Thapar, B. K. 1992, 'Pre-Indus and Early Indus cultures of Pakistan and India', in *History of Civilization of Central Asia, Vol. I - The Dawn of Civilization: Earliest Times to 700 BC*, UNESCO: Paris, pp 247-281.
- Jarrige, C., Jarrige, J-F. Meadow, R. H. and Quivron, G., 1995, *Mehrgarh: Field Reports 1974-1985, From Neolithic Times To the Indus Civilization*, Department of Culture and

Tourism of Sindh; Karachi.

Lal, B. B., 2003, *Excavations at Kalibangan: The Early Harappans 1960-1969*, Aryan Book International; New Delhi.

Trigger, Bruce G., 2003, *Understanding Early Civiliz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Yoffee, Norman, 2004, *Myths of the Archaic State: Evolution of the Earliest Cities, States, and Civilizations*, The University of Arizona Press; Tucson.

2-4) 도약과 몰락의 교차로: 중국 문명 성립의 여정

杜金鵬、許宏 編, 『偃師二里頭遺址研究』, (北京: 科學出版社).

樂豐實 1997, 『海岱地區考古學研究』, (濟南: 山東大學出版社).

劉國祥 2015, 『紅山文化研究』, (北京: 科學出版社).

劉莉 2007, 『中國新石器時代-邁向早期國家之路-』, (北京: 文物出版社).

Li Liu & Xingcan Chen 지음, 심재훈 옮김 2006, 『중국 고대국가의 형성』, (서울: 학연문화사).

류리、천상찬 지음, 김정열 옮김 2019, 『중국고고학-구석기시대 후기부터 청동기시대 전기까지』,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李伊萍 2005, 『龍山文化-黃河下游文明進程的重要階段』, (北京: 科學出版社).

李學勤 1995, 『走出疑古時代』, (瀋陽: 遼寧教育出版社).

馬世之 2003, 『中國史前古城』, (武漢: 湖北教育出版社).

飯島武次 1991, 『中國新石器文化研究』, (東京: 山川出版社).

飯島武次 2012, 『中國夏王朝考古學研究』, (東京: 同成社).

費孝通 1989, 『中華民族多元一體格局』, (北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徐旭生 1985, 『中國古史的傳說時代』, (北京: 文物出版社).

蘇秉琦 1994, 『華人, 龍的傳人, 中國人-考古尋根記』, (瀋陽: 遼寧大學出版社).

蘇秉琦 1999, 『中國文明起源新探』, (瀋陽: 遼寧人民出版社).

宋豫秦 2002, 『中國文明起源的人地關係簡論』, (北京: 科學出版社).

嚴文明 1989, 『仰韶文化研究』, (北京: 文物出版社).

王建華 2011, 『黃河中下游地區史前人口研究』, (北京: 科學出版社).

王明珂 2001, 『華夏邊緣: 歷史記憶與族群認同』, (臺北: 允晨叢刊).

王震中 1998, 『中國文明起源的比較研究』, (西安: 陝西人民出版社).

張光直 1999, 『中國考古學論文集』, (北京: 三聯書店).

張光直 1999, 『中國青銅時代』, (北京: 三聯書店).

張國碩 2006, 『文明起源與夏商周文明研究』, (北京: 線裝書局).

張弛 2003, 『長江中下游地區史前聚落研究』, (北京: 文物出版社).

赤峰考古隊 2002, 『半支箭河中游先秦時期遺址』, (北京: 科學出版社).

錢耀鵬 2001, 『中國史前城址與文明起源研究』, (西安: 西北大學出版社).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 編 1999, 『良渚文化研究』, (北京: 科學出版社).

朱乃誠 2006, 『中國文明起源研究』, (福州: 福建人民出版社).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2003, 『中國考古學 夏商卷』,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2010, 『中國考古學 新石器時代卷』,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中國社會科學院邊疆考古研究中心 編 2016, 『東北新石器時代』, (北京, 文物出版社).

陳星燦 2009, 『中國考古學史研究論叢』, (北京: 文物出版社).

陳淳 2007, 『文明與早期國家探源-中外理論, 方法與研究之比較-』,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初期王權研究委員會 編, 『古代王權の誕生 I 東アジア編』, (東京: 角川書店).

夏鼐 1985, 『中國文明的起源』, (北京: 文物出版社).

夏商周斷代工程專家組 2000, 『夏商周斷代工程1996-2000年階段成果報告』, (北京: 世界圖書出版公司).

韓建業 2003, 『中國北方地區新石器時代文化研究』, (北京: 文物出版社).

解希恭 主編 2007, 『襄汾陶寺遺址研究』, (北京: 科學出版社).

- 許宏 2009,『最早的中國』, (北京: 科學出版社).
- 許宏 2017,『先秦城邑考古』, (北京: 金城出版社).
- 湖南省考古學會 編 1996,『長江中游史前文化』, (長沙: 嶽麓書社).
- Diamond, Jared 2005, *Collapse: How Societies Choose to Fail or Succeed*, (New York: Viking)
- Keightley, David N. ed. 1983, *The Origins of Chinese Civiliz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ristiansen, Kristian and Larsson, Thomas B. 2005, *The Rise of Bronze Age Society: Travels, Transmissions and Transform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wang-chih, Chang 1986, *Archaeology of Ancient China*,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 Loewe, Michael and Shaughnessy, Edward L. ed. 1999, *The Cambridge History of Ancient China: From the Origins of Civilization to 221 B.C.*,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in, Li 2018, *Social Memory and State Formation in Early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elson, Sarah M. ed. 1995, *The Archaeology of Northeast China*, (London: Routledge).
- Shelach-Lavi, Gideon 2015, *The Archaeology of Early Chin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inter, Joseph A. 1988, *The Collapse of Complex Societ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rigger, Bruce G. 2003, *Understanding Early Civiliz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Yoffee, Norman 2004, *Myths of the Archaic State: Evolution of the Earliest Cities, States, and Civilizations*, (Tucson: The University of Arizona Press).
- Stein, Gil and Rothman Mitchell S. 1994, *Chiefdoms and early states in the Near East : the organizational dynamics of complexity*, (Madison: Prehistory Press).